

CRYSTAL

vol.7 성신여자대학교 뉴스레터
SUNGSHIN WOMEN'S UNIVERSITY NEWSLETTER



PART 1
CREATE THE FUTURE

06
FOR SUNGSHIN
하나의 팀이 되어
위대한 성신을 함께!
이성근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08
SUNGSHIN HISTORY
창학 89주년, 개교 60주년
성신여자대학교의 역사를 돌아보다

12
NEW SUNGSHIN 1
다양한 전공을 탐색한 후
진로를 찾아가는
창의융합학부

14
NEW SUNGSHIN 2
성신여자대학교
글로벌 역량을 키울
외국인 학생 전용 학부
국제학부

16
GLOBAL SUNGSHIN
세계로 뻗어 나가는
성신여자대학교

PART 2
LEAD THE PRESENT

22
SUNGSHIN PEOPLE 1
젊은 여성 과학인, 또 다른
여성 과학자 양성을 위한 길에 서다
박소현 화학·에너지융합학부 교수

24
SUNGSHIN PEOPLE 2
그라인더로 쓰는 회화의 언어
회화는 자신을 알기 위한
깊은 성찰이자 끊임없는 실험!
박영근 서양화과 교수

26
SUNGSHIN PEOPLE 3
성신여대 ROTC,
세 번째 대통령상 수상
무한 성장의 가능성과
빛나는 저력을 마주하다!
김예빈 소위
성신여대 제218학군단 ROTC 63기

28
SUNGSHIN PEOPLE 4
버려지는 자원에 사회적
메시지를 입혀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다
박미현 터치포굿 대표

30
RESEARCH IN SUNGSHIN
융합보안 연구의 새로운 기준!
자발적 배움의 본질을 찾는 CSE Lab
이일구 융합보안공학과 교수
김연진 융합보안공학과 석사과정 학생
심혜연 미래융합기술공학과 박사과정
학생

32
SOCIETY IN SUNGSHIN 1
우리는 서울을 거닐며
한국 문화를 경험해요
국제학생 동아리, 성신서울산책클럽

34
SOCIETY IN SUNGSHIN 2
산업을 이해하고 실습하며
전공을 더 깊이 이해합니다
바이오헬스융합학부 식품영양학 전공
동아리 '푸드켓'

PART 3
LIVE TOGETHER

38
SUNGSHIN EVENT 1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로
특별한 음악의 밤을 열다

40
SUNGSHIN EVENT 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제2회 성신 크리스탈 음악 콘서트

42
ESG SUNGSHIN
ESG 활동을 통해 미래지향적
가치를 실현하다

46
3C SUNGSHIN
광고를 통해 '성신다움'을
이야기하는 성신코어 3C

48
VIOLET SUNGSHIN
바이올렛으로 물들다
성신여자대학교의
성신 바이올렛 아이템

50
SUNGSHIN PLACE
이게 바로 캠퍼스 뷰 맛집!
여기 어때? 성신타플

52
SEASON SUNGSHIN
시간표보다 더욱 기억에 남는
캠퍼스의 풍경
성신여자대학교 사계절.zip

54
TWINKLE SUNGSHIN
성신여자대학교를 빛낸 이름들

58
SUNGSHIN SNS
Follow Us!

59
DONATION NEWS

60
DONATORS

65
SUPPORT US TOGETHER

CRYSTAL 통권 제7호

발행일
2025년 7월 24일

발행인
이성근

발행처
성신여자대학교 대외협력홍보팀

편집/디자인
(주)꽃을담다

사진
성신여자대학교/이원재



Build What's Next

1

PART 1 * CREATE THE FUTURE

FOR SUNGSHIN

하나의 팀이 되어
위대한 성신을 함께!
이성근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SUNGSHIN HISTORY

창학 89주년, 개교 60주년
성신여자대학교의 역사를 돌아보다

NEW SUNGSHIN 1

다양한 전공을 탐색한 후
진로를 찾아가는 창의융합학부

NEW SUNGSHIN 2

성신여자대학교 글로벌 역량을 키울
외국인 학생 전용 학부, 국제학부

GLOBAL SUNGSHIN

세계로 뻗어 나가는
성신여자대학교

✧
**하나의
 팀이 되어
 위대한
 성신을 함께!**

2025년 7월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이성근



창학 100년을 앞둔 시점에 중책을 맡아 구성원들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향해 달려온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저는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발전해야 하고, 성장해야 하며,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구성원들 사이에 의견과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성신의 미래는 더욱 위대하고 밝아질 것입니다.

올해 성신은 학문 간의 결합과 융합에 가장 역점을 두고 혁신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학문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가, 각기 전문적인 분야로 발전해 갔습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의 수학자가 동시에 철학자이자 건축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학문들은 서로 결합하고 융합하면서 다시 함께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계공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자공학과 결합했고, 재료공학은 물리학과, 경영학은 공학과, 인문학은 IT와 만나 융합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나의 학문에 다른 학문을 결합하는 개방된 학문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학문이 문을 닫고 고립하는 순간, 더 이상 설 자리는 없습니다.

문을 열고 세상의 다른 학문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 대학은 성북의 대학, 서울의 대학을 넘어 세계의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와 기술을 접할 때 우리의 경쟁력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낯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잘 왔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새로운 길은 늘 낯설고 약간은 험난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택하는 일, 그 자체가 모험입니다. 그러나 학문 자체가 남들이 보지 못한 것, 발견하지 못한 것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보다 모험적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방향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핵심적인 요소는 협력과 협동 그리고 연결하는 능력이 대학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협력(collaboration)은 하나의 일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시너지를 얻으려는 노력이고, 협동(cooperation)은 여러 부분의 일을 나누어 실행하여 하나로 합침으로써 시너지를 얻으려는 노력입니다. 연결(connectedness)은 각 부분들이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서로 관련을 가지도록 이어주는 하나의 인프라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의 역량을 모을 때, 비로소 최고의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는 자원이 많은 대학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축구 명문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 감독, 알렉스 퍼거슨은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각 구성원이 가진 역량을 같은 목표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인공지능시대에 가장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학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학문의 방향이 이렇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결합하여 시너지를 높이고, 이를 위해 서로의 손을 잡는 것!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교육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성신여대는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학문 연구 활동을 지속하며 미래를 이끌어갈 잠재력을 대내외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신은 사범대학으로 출발해 예술 및 인문사회 분야로 성장했으며, 최근에는 자연 및 공학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인재상도 바뀌고, 인재의 역량도 변화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잘 충족시키되, 인문-예술 등 전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여 년에 걸친 우리 대학의 국제화가 이제 학문적 부분에서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할 시간입니다. 변화의 시대, 하나의 팀으로 뭉쳐 성신의 위대한 도약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이 성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하나의 팀, 위대한 성신- 여러분이 그 중심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성신여자대학교가 개교 60주년을 맞이했다. 유능한 여성 교사 양성을 목표로 첫발을 내디딘 우리 학교는 11개 단과대학의 50개 학과, 5개 대학원, 12,300여 명의 성신인이 함께 하는 대학으로 성장했다. 창학 89주년, 개교 60주년을 맞이해 그 발자취를 되돌아본다.

창학 89주년, 개교 60주년 성신여자대학교의 역사를 돌아보다

성신여대 히스토리



1936~

성신학원 창립과 여성교육의 시작

성신학원 창립자인 윤정 리숙종 박사는 일제의 탄압으로 폐교가 된 태화여학교를 인수하고 여성계몽 교육을 위해 성신여학교를 설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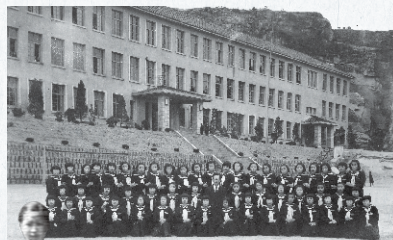
- 1936 성신여학교 설립, 초대 학교장 리숙종 선생 취임,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천도교기념회관에서 개교식 거행
- 1937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교사로 이전
- 1939 성신가정여학교 설립
- 1942 돈암동 신숙교사 착공
- 1945 재단법인 강제학원 설립, 전시 통제로 인한 교육체제 개정으로 성신여자상업학교 인가

1945~

광복 이후 중·고교 발전기

광복 이후 정부수립 및 6·25 전쟁 등의 혼란기에도 민주적 여성교육이라는 가치 아래 중·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됐다.

- 1945 성신고등여학교 전환
- 1948 재단법인 성신학원으로 재단명칭 변경
- 1951 교육법 일부 개정으로 성신여자중학교, 성신여자고등학교 병설인가 부산시 충무로 3가 피난전시학교 개설
- 1953 부산 전시학교에서 서울에 복귀 개교



1965~

대학설립과 유능한 교사 양성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교육자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위해 1965년 <새로운 여성 지도자의 양성>을 목표로 성신여자사범대학으로 전환했다.

- 1965 성신여자사범대학 설립 및 윤정 리숙종 박사 학장 취임 성신여자사범대학 부속국민학교 설립
- 1967 성신여자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설립
- 1969 성신여자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설립
- 1979 성신여자대학으로 교명 변경
- 1981 단과대학 신설(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사범대학, 예술대학) 및 학과 개편, 신설



1982~

종합대학 승격과 성신의 도약

<성신> <지신> <자동>의 교육이념 아래 성신의 일치단결한 정진의 결과로 승격 인가를 받아 종합대학으로서 성신여자대학교가 출범했다.

- 1982 성신여자대학교 종합대학 승격 및 조기홍 박사 초대 총장 취임
- 1983 교육대학원 신설인가 성신유치원 설립
- 1985 설립자 윤정 리숙종 박사 타계



1995~

캠퍼스 확장과 국립의료원 승격로 간호대학 설립

1990년대에는 운정관, 체육관, 수정관, 남향관 등 수정캠퍼스의 중요한 건물이 준공되었으며 2006년에는 메인 건물인 성신관이 준공되었다. 2011년에는 미아동에 윤정그린캠퍼스를 건립하고 두 개의 캠퍼스로 교지가 확장되었다.

- 1995 수정관 준공
- 199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대학종합평가결과 6개 영역 중 5개 영역 우수대학 선정, 최우수대학원 선정
- 2003 성신여자대학교 신규 UI 선포
- 2006 성신관 준공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승계
- 2007 간호대학 간호학과 신설
- 2011 윤정그린캠퍼스 개교 여자대학 학군단(ROYC) 설치대학으로 선정

2020~

글로벌 대학으로 고속 성장

코로나 팬데믹과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서 성신의 시선은 세계로 확장되었고 국내외의 기관 평가에서 국제화에 따른 우수한 평가를 거두고 있다.

- 2020 신축 기숙사 '성미관' 개관
- 2024 모집단위 광역화 도입
- 2025 창학 89주년 및 개교 60주년 기념식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우수인증대학 선정(11년 연속) 교육부 2025~2026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영국 Quacquarelli Symonds '2026 QS 세계 대학 평가' 국내 여대 2위·서울 소재 대학 15위



성신여자대학교 UI



성신여자대학교(2003.10~현재)

정사각형에 성신의 'S'을 도안화 한 기존 교표에서 2003년 10월 8일 새로운 UI가 탄생하였다. 성신의 상징물인 수정구에 역동적으로 뻗어나가는 'Bright'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세계로 나아가는, 정보화를 이끌어가는 성신의 의지와 미래상을 표현하고 있다. 심볼마크의 바이올렛 컬러는 성신인의 버라이어티한 감성을, 블루 컬러는 성신인의 지성과 비전을 상징한다.

성신여자사범대학(1965.3.~1980.2.), 성신여자대학(1980.3.~1982.3.)

성신여자대학교(1982.3.~2003)

교표의 겉모양은 정사각형이고 그 바탕은 흰색으로 되어 있다. 이 정사각형은 사람들이 가야 할 정직한 길을 상징하는데, 이는 새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자질인 정직·성실을 말하고, 흰 바탕은 청결과 평화를 뜻한다. 종합대학으로 승격 후 테두리의 학교명만 변경되어 2003년 새로운 UI가 확정되기 전까지 사용되었다.



성신여자중학교·성신고등학교 분리

(1951.5.~1959)

한국전쟁 중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분리되면서 중학교는 난초잎과 꽃봉오리가 모두 안쪽의 성신을 향하도록 도안이 변경되었고, 고등학교는 글씨를 도안화하고 바탕을 초록색을 넣어 난초를 상징하였다.



성신여자상업학교·성신고등여학교·

성신여자중학교(1944.4.~1951.4.)

성신을 상징하는 '성신과 난초'를 바탕으로 교표가 만들어졌다. 원형의 아래로부터 전면 3분의 2에 걸쳐 두 송이의 난초를 그려 넣고 가운데 위쪽으로 '성신'을 은빛으로 양각했다.

성신가정여학교(1937.8~1944.3.)

성신가정여학교로 바뀌며 동일한 윤곽 속에 '성신' 대신 '가정'을 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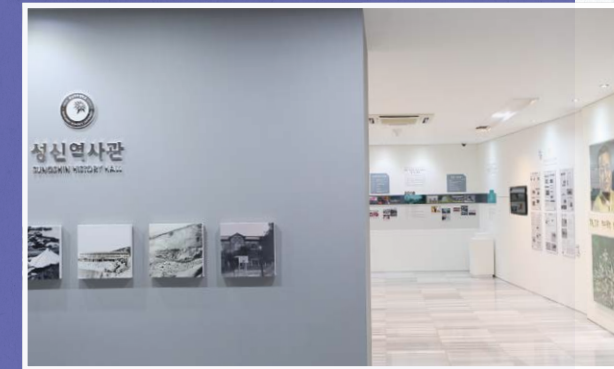
성신여학교(1936.4.~1937.7)

8송이의 고옥경 한가운데 '성신'을 양각하고 그 둘레에 세 군데 상록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그렸다.

성신역사관



성신여대 수경캠퍼스에는 1936년 성신의 역사가 시작된 시기부터 지금까지의 성신의 역사를 조망해보고 성신 창학 100년의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공간이 있다. 바로 성신역사관이다. 2006년 개관한 운영기념관을 새단장하고 2021년 12월에 재개관한 성신역사관은 설립자의 생애와 업적부터 성신의 정체성 그리고 성신 100년사, 성신문화 등 성신의 발전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360° 성신역사관 바로가기(VR)



다양한 전공을 탐색한 후
진로를 찾아가는

창의융합학부

2024학년도에 신설된
창의융합학부는
전공자유선택제로
자유전공, 첨단분야전공,
예체능전공 3개 계열로
나누어 신입생을 선발한다.
각 전공별 입학생들은
1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기초 소양을 쌓은 후, 2학년
진입에 앞서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과(부)를
최종 결정한다.

☞ 운정그린캠퍼스 B동 533호, 창의융합학부생을 위한 창의융합라운지



전공 선택을 위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구성

창의융합학부는 학생들이 교과 과정을 통해 학문을 경험하고 적성을 찾을 수 있게 학과(부)별 기초 전공 수업에 해당하는 과목을 전공탐색과목으로 구성해 학과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다. 또한, 전공 선택의 폭을 넓혀둔 만큼 조기에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1학년 필수 교양인 <전공별 진로탐색>에서 '학과별 사제동행' 프로그램이 학기 초에 진행되었다. 42개 학과(부)의 협조로 진행되는 이 과목은 소속학과(부) 전임교원이 전공에 대한 특별 강연을 진행하여 학과의 진로와 직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비교과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1학기에는 창의융합학부만을 위한 학과(부) 설명회를 진행해 학과(부)의 실험/실기실 탐방 및 오픈 클래스 참석 기회를 제공하며, 전공 비교과 프로그램 및 동아리를 안내하는 중이다. 2학기에 개최되는 전공박람회에서는 학사 정보, 교환학생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 본격적으로 전공 선택을 위한 각종 정보를 자세히 소개한다.

책임지도교수제(Academic Advisor I) 및 선배 멘토링 등으로 소속감도 UP

창의융합학부는 신입생인 학부생을 총 19개의 소그룹(분반)으로 나눈다. 대학 생활 및 학업 적응을 돕기 위해서다. 분반마다 책임지도교수(Academic Advisor I)를 정하고, 지도 교수는 학생들과 그룹 및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 또, 창의융합학부 출신 선배와 전공학과(부) 선배로 꾸려진 창의융합학부 멘토단은 학부 행사에 참여하거나 멘토콘서트와 같은 행사를 직접 준비해 후배들과 교감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에는 제1대 창의융합학부 학생회 '개화(開化)'가 발족해 창의융합학부 출신 24학번과 창의융합학부 신입생 25학번이 함께 학생 대표 자치 기구를 꾸려가는 중이다. 이 외에도 학부소식지를 제작하는 편집부, 예술 관련 독서 및 토론학회 '예창', 배드민턴 동아리 등 총 5개 학회 및 동아리를 신설 및 운영해 학생들의 소속감을 제고하고 있다. 한편, 창의융합학부는 수정캠퍼스 수정관 창의융합라운지(C동 317호), 창의융합학부 멀티룸 1·2(C동 318호·319호), 창의융합학부 상담실(C동 320호), 그리고 운정그린캠퍼스 창의융합라운지(B동 533호)까지 전용 공간을 마련해 소속 학생들의 전공 탐색 활동 및 원활한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전공이나 진로를 정하기 어렵고
폭넓게 알아보고 싶다면
창의융합학부가 정답입니다

Interview 백경아 창의융합학부 첨단분야전공 25학번

☞ 창의융합학부 첨단분야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창의융합학부는 자유전공, 첨단분야전공, 예체능전공 3개 계열로 나뉩니다. 제가 입학한 첨단분야전공은 2개 단과대학 내 5개 학과(부)중에서 선택해 2학년부턴부터 공부하게 됩니다. 해당 학과(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화학-에너지융합학부, 바이오헬스융합학부, 바이오신약의과학부, 시융합학부가 있습니다.

☞ 창의융합학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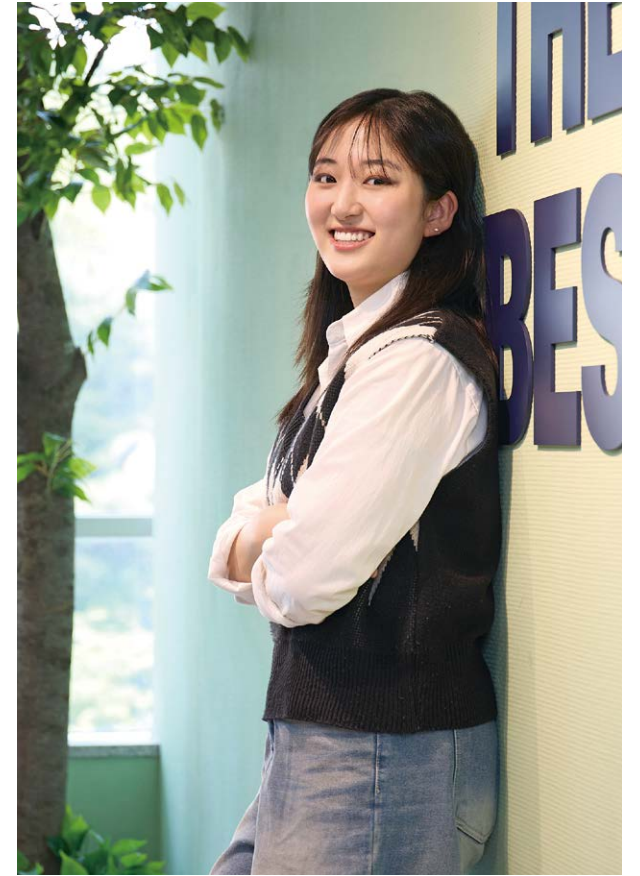
막연히 '자연과학대학 계열로 진학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순수과학과 응용과학 중 무엇을 공부할지 등 여러 선택지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 신설된 성신여대 창의융합학부를 보았고, 진학 후 1년 동안 폭넓게 전공을 살펴보며 길을 찾기로 계획했습니다. 저처럼 원하는 전공이나 진로를 확정하기 어려운 학생들, 관심 분야가 여러 가지라 고민된다면 창의융합학부를 추천합니다.

☞ 직접 체감한 우리 학부의 장점을 이야기해주세요.

궁금한 학과(부)가 있다면 자유롭게 여러 수업을 들어볼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어느 학과가 어떤 수업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직접적으로 듣고 보고 체험할 수 있어 진로의 길이 다양하게 열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생명 수업을 좋아해서 막연하게 바이오 관련 학과에 진학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1학기를 탐색하면서 화학-에너지융합학부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2학기에는 바이오신약의과학부와 화학-에너지융합학부 두 학부를 본격적으로 탐색하려고 해요. 2학기에 어느 쪽으로 진학할지 결정 내려야 하는 만큼, 두 수업을 듣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 학문, 내가 더 관심있게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전공이 무엇인지 찾을 예정입니다. 어떤 공부를 하든 이후에 대학원까지 좀 더 공부해서 연구자의 길을 걸거나 제약 분야로 취직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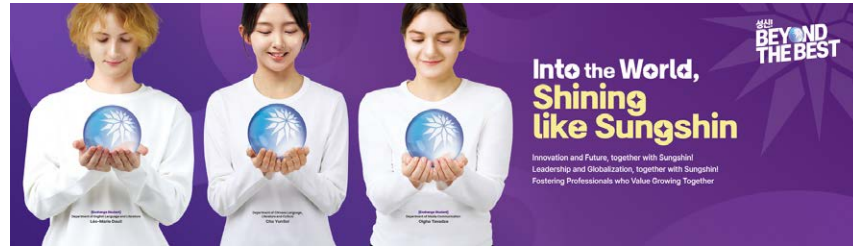


☞ 수정캠퍼스 수정관 C동 317호, 창의융합학부생을 위한 창의융합라운지

성신여자대학교의 글로벌 역량을 키울

외국인 학생 전용 학부 국제학부

2025년 성신여자대학교에
최초로 외국인 전공 학부인
국제학부가 신설됐다.
한국 산업과 문화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전공으로,
국제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대학으로서 입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예정이다.



K- 문화 및 산업에 관심이 많은 국제학생을 위한 전공

국제학부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과정으로 <글로벌한국학전공(한국어교육트랙, K컬처 앤 엔터 트랙)>과 <뷰티·패션디자인전공>이 있다. <글로벌한국학전공>의 '한국어교육트랙'은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K-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한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을 배우고 'K컬처 앤 엔터 트랙'은 한국의 영화, 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전반을 배운다. 그리고 <뷰티·패션디자인전공>은 한국의 뷰티/패션에 관한 사항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익힌다. 영어가 더 익숙한 국제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글로벌한국학전공>의 '한국어교육트랙'을 제외한 국제학부의 모든 전공수업은 100% 영어로 진행된다. 국제학부의 두 전공은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있어 학생들은 다양한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글로벌한국학전공>의 '한국어교육트랙' 졸업자는 대학의 한국어교육기관 강사,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사, 한국어 교재 및 학습앱 개발자 등 한국어와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로 활동이 가능하며 'K컬처 앤 엔터 트랙' 졸업자는 영화, 방송, 예술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취업하거나 문화 교류 전문가, 문화 기획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뷰티·패션디자인전공> 졸업자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패션 디자이너, 뷰티 테라피스트 등의 전문가로서의 활동 뿐만 아니라 브랜드 창업 또는 관련 기업에서 홍보기획 및 마케팅 전문가로도 활동할 수 있다.

생활, 학업,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과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장학금 제도까지

국제학부는 외국인 학생들이 낯선 생활 및 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및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가장 먼저 입학부터 졸업까지 한 명의 교수님이 전담해 진로와 생활을 케어하는 책임지도교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전공 튜터링 및 멘토링 프로그램, 문화와 학업을 교류하는 한국 학생과의 버디 프로그램 등도 마련했다. 워크숍, 체육대회, 국제교류의 밤, 한국문화체험 등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국제학생회(SISA)를 운영해 친목을 도모하며 학부 소속감을 높인다. 또한 진로/취업 전략 교육, 사회봉사 등 한국에 적응 및 정착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장학금 제도도 탄탄하다. 한국어트랙은 입학 전 TOPIK 4급 이상이면 첫 학기 수업료의 100%, TOPIK 3급이면 첫 학기 수업료의 8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K-컬처 앤 엔터 트랙과 뷰티·패션디자인 전공도 IELTS 5.5, TOEFL iBT 71 이상, 모국어가 영어인 학생이라면 첫 학기 수업료 100%를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공별 학년별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다음학기 수업료를 최대 20~100%까지 장학금으로 수여해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있다.

탄탄한 커리큘럼과 성신여대만의 따뜻한 분위기, 학교 생활이 즐거워요

Interview 국제학부 글로벌한국학전공 25학번

- 글로벌한국학전공_한국어교육트랙
에르데네 온다르마(ERDENEE UNDARMAA), 몽골
에르데네 자르갈마(ERDENEE JARGALMAA), 몽골
- 글로벌한국학전공_K-컬처 앤 엔터 트랙
헤네시스(MEJIA QUIMBIULCO GENESIS), 에콰도르

성신여대 국제학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다르마 처음 한국드라마 <마이데몬>의 촬영지로 알게 되었어요. 학교 공간과 분위기가 무척 좋아 마음에 들었는데, 국제 학생 교류 프로그램이나 서포트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장학금 제도도 좋고, 커리큘럼도 우리 자매가 원하던 방향이랑 맞아서 동생인 자르갈마와 함께 입학했어요.
헤네시스 성신여대 재학 중인 친구 덕분에 국제학부를 알게 되었어요. 마침 전공도 제가 꼭 배우고 싶던 분야였고요. 장학금, 지원제도도 다양해 선택하게 되었어요.

성신여대 국제학부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헤네시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어요. 그 덕분에 학업은 물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생각이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
자르갈마 국제학생만을 위한 학부 행사가 다양해요. 체육대회, 축제, 문화체험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국제학부 학생이라는 자부심을 얻는 것 같아요.
온다르마 책임지도교수님께 수업시간 외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상담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외국인 등록증 발급, 아르바이트, 서울 명소까지 사소한 질문도 꼼꼼하게 답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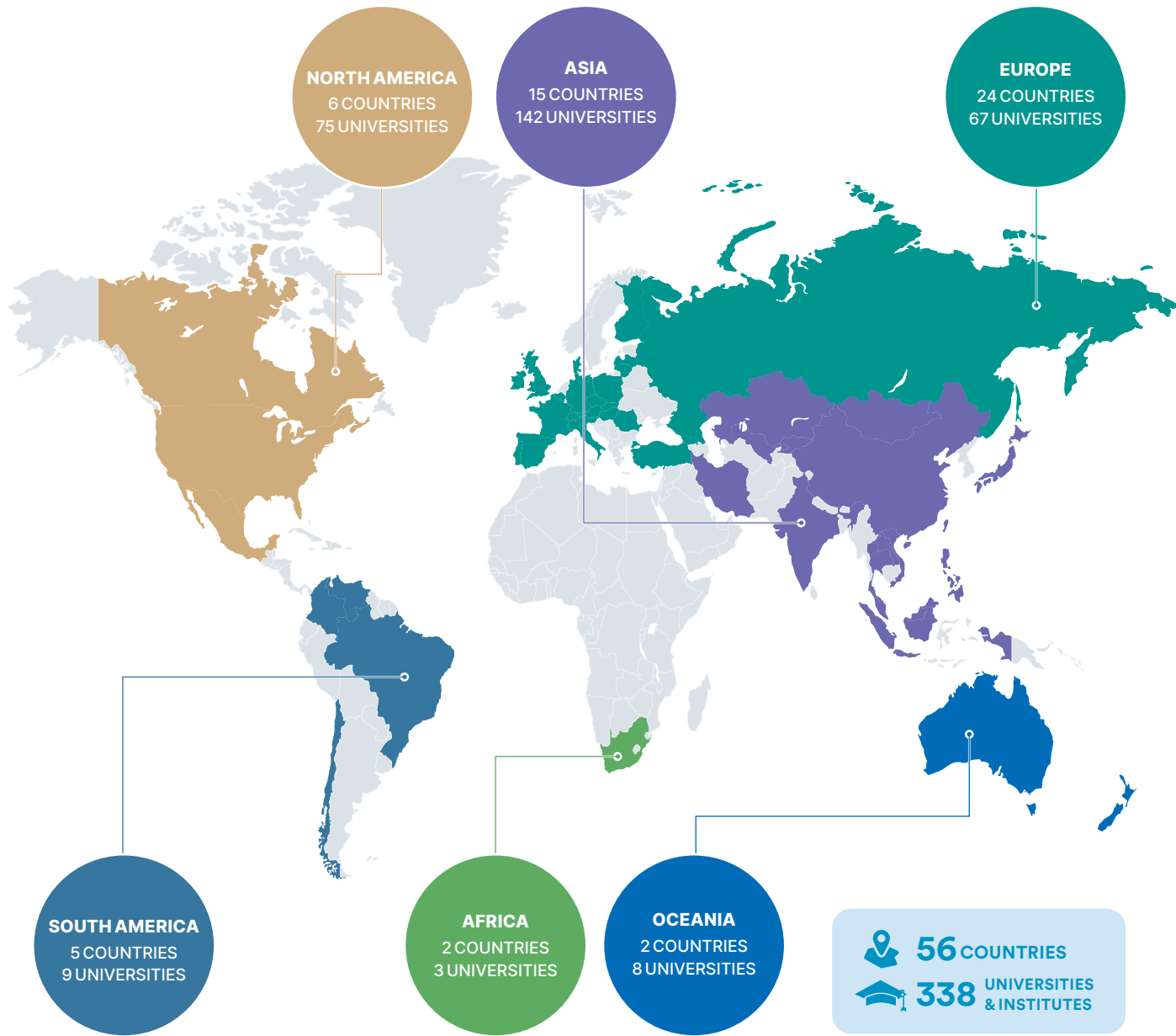
한국에 공부하러 올 외국인 친구들에게 성신여대를 추천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자르갈마 교수님, 직원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학교 적응이나 생활에서 힘들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어 한국어 실력도 조금 더 빠르게 느는 기분이지요.
헤네시스 흥미로운 전공 커리큘럼, 장학금 제도, 국제 학생을 위한 케어 프로그램, 시설 어느 하나 빠질 게 없어요. 또한 학내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모두 친절해요.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을 이야기해주세요.
온다르마 몽골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한국어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한 후, 몽골에 돌아가 자르갈마와 한국어 교사로 일하고 싶어요.
헤네시스 한국과 에콰도르, 두 나라가 문화나 예술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어 교류하면 사람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졸업 후 두 나라 간에 전시, 공연 등 문화 콘텐츠를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교류 전 과정을 지원하는 기획자가 되고 싶어요.

세계로 뻗어 나가는 성신여자대학교

1968년, 미국 스트랫포드대학교(Stratford University)를 시작으로 성신여자대학교는 전 세계 56개국의 338개 대학 및 기관과 교류 중이다.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성신여대의 교환학생들과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성신여대의 글로벌 파트너십 네트워크

성신여대는 전 세계 56개국의 338개 대학 및 기관과 교류 중이다.



성신여대의 다양한 글로벌 행사

성신여대는 다양한 글로벌 행사 및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고, 국제학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국내 진로 및 취업을 지원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포용적인 글로벌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는 '제2회 성신 글로벌 페스티벌'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 외국인 유학생 및 GKS 정부초청장학생 워크숍 '함께하는 성신'



성신여대, 국제학생들의 K-체육대회 'Ready, Set, Sungshin!'



상호 소통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제1회 국제교류의 밤'



성신여대-중국 하북과기대 학생이 참여한 아시아 최대 규모 대학생 패션 행사



국제학생들의 국내 진로 및 취업을 지원하는 '2025 글로벌 토틀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



Mini Interview_1

안드레아 본 (Andrea Born) 학생
성신여자대학교 x 독일 만하임대학교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 성신여자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오다

수준 높은 교육에 노력을 기울이는 성신여대에 오다

안녕하세요! Hallo! Salut! 제 이름은 안드레아 본 (Andrea Born)입니다. 저는 독일 만하임 응용과학대학교(Mannheim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으며 성신여자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 중입니다. 저는 항상 새로운 문화를 탐험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국가에서 살아보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된 이후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직접 진짜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마침 성신여대와 저희 학교 간 교류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평소 관심이 많았던 데다가 제 전공과 사회적 역할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서 성신여대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됐습니다. 독일에는 여자대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에겐 성신여대가 매우 새롭고 독특했어요. 다양한 행사와 흥미를 반영한 동아리 (예: 고양이 동아리 등)가 있다는 점도 매우 인상 깊었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 모교인 독일의 대학은 꽤 단조롭고 평범한 편이에요. 그런데 성신여대는 오기 전 캠퍼스, 동아리, 수업 구성, 학생 편의시설, 다양한 이벤트에 대해 조사했을 때부터 인상 깊었고 오고 나서는 더욱 감탄하게 되었어요. 제 모교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다양한 수업을 듣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성신여대는 학생들에게 집과 같은 편안함을 제공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곳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디자인 전공자로서 성신에서 들은 수업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 '편집 디자인' 수업은 문화에 따라 활자나 인쇄 방식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비슷한 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과제량이 꽤 많았지만 교수님과 친구들이 영어로 설명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큰 배움이 되었어요.

국제학생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뜻깊은 학교생활
제가 성신을 다른 외국인 학생에게 소개한다면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건 '국제학생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학교'라는 점이에요. 국제대외협력처는 언제나 크고 작은 문제에도 성심껏 도와주고,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님들은 (비록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되더라도) 외국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려 수업을 담당해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신의 학생들이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넘치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도움을 주려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고 덕분에 한 번도 외롭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대외활동도 무척 많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학기 초 SISA(국제학생회)와 함께한 현장학습이에요. 그날은 정말 '내가 다른 나라에 와 있구나' 하는 걸 실감한 순간이었어요. 다양한 한국 전통 놀이를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정말 즐거웠어요. 이러한 이유들로 성신여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꼭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학문적으로도, 인생 경험적으로도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Mini Interview_2

신하령 AI융합학부 학생 (21학번)
오스트리아 빈대학교 x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의 특권, 교환학생 버킷리스트를 이룬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사고력을 기르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2학기에 오스트리아 빈대학교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AI융합학부 신하령입니다. 교환학생 경험은 제게 꼭 이루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습니다. 해외에서 학생 신분으로 장기간 생활하는 것은 대학생 때만 누릴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녀온 학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빈 대학교(Universität Wien)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대학교 중 하나입니다. 프로이트, 하이에크, 슈뢰딩거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을 비롯하여 노벨상 수상자를 15명 배출한 학교입니다. 기본 전공(우리 학교로 치면 핵심 전공) 수업들은 대부분 독일어로 진행되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많지 않았지만 대신 심화 전공 과목들은 영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주로 영어 강의를 선택하였습니다. 수업 분위기는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답이 틀릴 수도 있음에도 주저하지 않고 의견을 내었고 쉬운 내용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당당하게 질문하였습니다. 교수님들께서도 학생들의 질문이나 대답에 대해 전혀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매우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시험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이론을 깊이 생각하고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을 이끌어 주신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께서 본인이 연구하시는 주제나 최신 자료도 자주 소개해주셔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질문을 많이 하지 못했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주변 학우들에게 물어보면서 점차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탐구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
이곳에서는 ESN(유럽 학생 네트워크)이 다양한 행사를 주최합니다. ESN은 제휴하고 있는 여행 업체나 이벤트 업체들이 많아서 매우 싼 가격에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ESN과 제휴를 맺은 yes-trip의 스웨덴 오로라 투어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날씨 변동으로 계획이 많이 틀어졌지만 크리스마스에 오로라를 본 것은 잊지 못할 추억 중 하나입니다. 학기 초에는 웰컴파티도 열리는데 그곳에서 포르투갈부터 노르웨이까지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 시야가 정말 넓어졌음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스스로도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한층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 경험은 단순히 해외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을 넘어 저의 가치관과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또한, 교환학생 생활을 통해 참을성과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으며 부당한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제 의견을 표현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도전할 수 있는지를 탐구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경험 덕분에 앞으로의 진로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한 번 도전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Dream, Make, Lead!

2

PART 2 * LEAD THE PRESENT



SUNGSHIN PEOPLE 1

젊은 여성 과학인, 또 다른
여성 과학자 양성을 위한 길에 서다
박소현 화학·에너지융합학부 교수

SUNGSHIN PEOPLE 2

그라인더로 쓰는 회화의 언어
회화는 자신을 알기 위한
깊은 성찰이자 끊임없는 실험!
박영근 서양화과 교수

SUNGSHIN PEOPLE 3

성신여대 ROTC,
세 번째 대통령상 수상
무한 성장의 가능성과
빛나는 저력을 마주하다!
김예빈 소위
성신여대 제218학군단 ROTC 63기

SUNGSHIN PEOPLE 4

버려지는 자원에 사회적 메시지를 입혀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다
박미현 터치포굿 대표

RESEARCH IN SUNGSHIN

융합보안 연구의 새로운 기준!
자발적 배움의 본질을 찾는 CSE Lab
이일구 융합보안공학과 교수
김연진 융합보안공학과 석사과정 학생
심혜연 미래융합기술공학과 박사과정 학생

SOCIETY IN SUNGSHIN 1

우리는 서울을 거닐며
한국 문화를 경험해요
국제학생 동아리, 성신서울산책클럽

SOCIETY IN SUNGSHIN 2

산업을 이해하고 실습하며
전공을 더 깊이 이해합니다.
바이오헬스융합학부 식품영양학 전공
동아리 '푸드켓'

젊은 여성 과학인, 또 다른 여성 과학자 양성을 위한 길에서다

박소현 화학·에너지융합학부 교수



2023년 성신여대 화학·에너지융합학부로 부임한 박소현 교수는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미래인재상을 비롯해 2024년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펠로십, 2025년 포스코 사이언스펠로십을 수상하며 젊은여성과학인으로서 역량을 계속해 인정받았다. 화학과 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은 여성 리더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는 그를 만났다.

☞ 화학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화학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 화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모든 것의 근원과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 화학 반응을 통해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색이나 물성이 변하는 것을 보며 흥미를 느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구온난화, 환경문제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생 때 부터 지금까지 틈틈이 생태봉사활동, 산불피해봉사 등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화학을 깊이 공부하게 되고 환경에 관심을 이어가다 보니 열전 분야 및 화학센서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 교수님의 연구를 소개해 주세요.

☞ 저는 열전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열전이란 열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에너지 중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열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에너지로 바꾸면 지구의 과도한 열 축적을 막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열전 소자 기술은 상용화 단계에 있지만 아직 효율이 낮아요. 저는 작은 단위인 원자, 분자의 구조를 변화시키며 열전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분자 구조 변화에도 효율이 몇십 배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연구 분야로는 생태계나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과불소 화합물을 감지하는 화학소재 및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화학·에너지융합학부에 들어오면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나요?

☞ 저희 학부는 화학이라는 기초과학과 에너지라는 응용과학을 융합하여, 실용성과 학문성을 동시에 갖춘 교육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관련 분야의 지식을 폭넓게 쌓을 수 있어요. 화학도 유기, 무기, 물리, 분석, 생, 고분자화학 등 여러 갈래로 나뉘집니다. 예를 들어 신약을 개발하려면 반드시 유기화학을 배우고, 합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약 외에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건축자재, 재생에너지, 생활용품, 석유, 화장품 등 모든 산업 전반에서 화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화학과 에너지 분야의 기초를 고루 쌓고 특정 분야를 심화해 공부하면서 진로를 찾아가기에 최적의 커리큘럼과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 성신여대 화학·에너지융합학부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 저희 학부는 커리큘럼은 물론 교수님들의 지도가 매우 세심합니다. 특히 화학·에너지융합학부는 실험 수업이 많은데요. 교수와 학생 간에 실험 과정이나 결과를 공유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공부에 더 흥미를 느끼고 몰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학부생 단계에서 학교 중앙기기실의 장비를 활용해 전공실험 공부를 할 수 있고 실험에 특화된 탄탄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환경을 바탕으로 앞으로 성신에서 더 많은 인재가 배출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학생들과 가까이 지내며 소통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 제가 다른 교수님들에 비해 나이가 적은 편이라, 언니처럼 편안하게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웃음) 그래도 여전히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텐데 친밀하게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성적에 대해 고민하는 1~2학년 학생들에게 제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고요. 3~4학년이 되면 하고 싶은 연구 그리고 진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고 있어요. 연구자로서 길을 걷고 있기에 제 연구 분야를 소개해주거나 하고 싶은 연구 분야가 있다면 필요한 공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연구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자 합니다.

☞ 교수님의 앞으로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데, 향후 교육/연구의 목표와 계획을 이야기해 주세요.

☞ 교수로서 학생들을 위한 좋은 수업을 하는 것은 물론 연구자로서 좋은 연구를 잘 해나가고 싶습니다. 학생들과 교류하고 연구하는 것은 저에게 큰 즐거움입니다. 화학·에너지융합학부의 학생들이 보다 더 좋은 이공계 리더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잘 지도하고 많이 서포트하겠습니다. 열심히 연구하는 저희 연구실 학생들과 함께 열전 효율이 높은 분자구조체 개발 및 높은 감도를 가지는 화학센서를 궁극적으로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라인더로 쓰는 회화의 언어 회화는 자신을 알기 위한 깊은 성찰이자 끊임없는 실험!

박영근 서양화과 교수



Fine Art

여전히 '순수한 자기 것'에 대한 질문을 놓지 않으며, 삼십여 년 넘게 한결같이 예술적 시도를 펼치며 회화의 틀을 확장해온 화가 박영근. 그라인더라는 도구를 통해 작품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사물의 감각들을 자신만의 것으로 번역하고 재구성해 새로운 이야기로 엮어내는 박영근 교수를 교내 작업실에서 마주했다.



광화문 교보문고 '노벨상 수상자 초상화 전시공간'에 설치된 한강 작가 초상화



마이 히어로즈(My Heroes) 전시회 중 6.25 참전용사 초상화



삼십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려 오신 작품은 깊은 감동과 의미를 담고 있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신데요. 꾸준히 활동하고 계신 교수님의 요즘 근황이 궁금합니다.

작년 12월 교보문고 내 노벨상 수상자 초상화 전시 공간에 한강 작가의 초상화가 걸렸습니다. 2014년부터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를 위한 자리가 비워져 있었는데 10년 만에 그 자리의 주인공이 등장한 셈이죠. 우리나라 최초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초상화를 그리게 되어 영광이었고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작업이었습니다. 기존에 헤밍웨이나 아인슈타인 등 6점의 초상화를 그렸지만 살아있는 작가를 그리는 것은 제게도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바람이 분다', '흰'같은 소설을 읽으며 삶과 죽음이 얽혀 있는 실타래, 바람의 근원, 바람이 일렁이는 모습들을 모티브로 삼았죠. 고민 끝에 그린 7점 중 한강 작가가 한 점을 선택했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전시공간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화가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어릴 때부터 미술 관련 상도 많이 받았고 주변에서도 자질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신문배달을 하면서 극장에 배달을 하러 다니다가 영화 간판 포스터를 그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었죠. 중학교 입학 후 미술부에 들어가게 되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술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라인더 기법의 화법으로 유명하신데, 어떤 영향으로 그러한 작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그림을 그리는 '속도'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즈음에 인부들이 한옥을 해체하는 현장을 보게 되었어요. 그라인더를 가지고 무시무시한 속도로 철을 자르고 표면을 갈아내고 있던군요. '빠른 속도를 제어할 수만 있다면 그림에도 변화를 줄 수 있겠구나'하는 직감이 들었고 이후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거쳐 그라인더를 사용한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전시회를 이어오셨는데, 가장 애정이 가고 기억에 남는 개인전이나 작품은 무엇인가요?

2008년 열린 'The Tools'라는 전시입니다. 문명의 도구를 주제로 징기스칸, 나폴레옹은 물론 현대 미술가들의 예술적 도구가 되다시피 한 모택동, 천안문 등의 이미지를 작업했죠. 이를 통해 사물과 인물을 병치하여 통찰과 새로운 시각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요.

좋은 작품이란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순수한 자기 것'을 담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가는 '시각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기에 자기만의 언어와 해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화는 수많은 작가들이 다양한 시도를 해온 장르라 쉽지 않지만 그 고유성을 찾아내고 지켜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일들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마이 히어로즈(My Heroes)' 전시를 학생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의 요청으로 6.25 참전용사 제복 수여식에 맞춰 학생들이 참전용사의 초상화를 직접 그려 드리는 프로젝트였죠. 제가 맡은 1학년 수업 학생들이 대거 참여했고 그림을 전달하는 행사를 마친 후에는 전시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진이 줄 수 없는 감동을 회화가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낀 순간이었고 학생들에게도 의미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서양화를 전공하고 싶은 예비 수험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처음 캔버스를 마주했을 때의 그 설렘을 계속 유지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그림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학원이 끝났다고 해서 그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 그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어공부도 하고 좋은 전시도 많이 본다면 향후 해외활동이나 전공의 깊이를 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술가로서 어떤 작가로 기억되길 바라시는지, 그리고 교수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다양한 특별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나혜석 선생을 조명하는 전시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 요즘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주제로 데일리 드로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가들은 작업 앞에서 막막함, 일종의 백색공포증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이라는 텍스트는 그 막연함에서 저를 해방시켜주고 오히려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틀을 마련해줍니다. 이 작업은 아마 평생 지속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성신여대 ROTC, 세 번째 대통령상 수상 무한 성장의 가능성과 빛나는 저력을 따주하다!

♫ 김예빈 소위 성신여대 제218학군단 ROTC 63기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2025년 졸업)



성신여대 제218학군단에서 또 한 명의 대통령상 수상자가 탄생했다.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무장한 김예빈 소위는 대통령상 수상으로 성신여대 학군단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해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군 장교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힌 김예빈 소위. ROTC에 대한 여대생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의 이야기를 통해 성신여대 ROTC의 발자취와 미래를 함께 들여다본다.



❖ 자기소개와 더불어 성신여대 학군단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알려주세요.

↳ 제 218학군단 출신 63기 학군 장교로 임관한 소위 김예빈입니다. 2025년 2월,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육군 소위로 첫 발을 내딛은 상태입니다. 대학 입학 후 우연히 입학식 홍보영상을 통해 학군단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운명처럼 ROTC에 끌리게 되었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본 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친구들도 평소 기본과 규율을 잘 지키는 FM 스타일이라며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 대한민국 최고 여성 학군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성신여대 제218 학군단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성신여대 제218 학군단은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창설된 여성 학군단으로, 지난 14년간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국내 최고 수준의 여성 학군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세 명의 대통령상 수상자와 국무총리상 수상자를 배출해냈으며, 학군단 설치 대학 국방부 평가 최우수 선정과 함께 2024년에는 최정예 학군단에 선발되는 등 뛰어난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신여대 학군단에는 기수 간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짝선후배' 제도가 있어 선후배 사이에 서로 도와주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매달 실시하는 체력 측정을 위해 팀을 꾸려 운동 인증을 하고 상벌점을 주고받으며 협동심과 체력을 함께 길러가고 있습니다.

❖ 성신여대 학군단에서 세 번째 대통령상 수상자로 기록되었는데, 학군단의 명예를 이어가게 된 소감이 궁금합니다.

↳ 2021년 학군단 면접을 보러 프라임관에 들어서자 역대 대통령상 수상자 상장들이 나열된 게시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Who's next?를 뜻하는 것처럼 크게 물음표가 되어 있었는데 그 곳을 지나가면서 그 자리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제가 대통령상 수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큰 상을 받을 수 있어서 감격스러웠고 무엇보다 운이 좋게도 팀원들을 잘 만났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했던 팀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 대학생활과 군사훈련을 병행하는 바쁜 생활 속에는 고충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 방법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 제 좌우명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하자'입니다. 그 말처럼 대학시절도 충실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ROTC 내 운동 동아리뿐만 아니라 전공 외에도 복수전공(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을 병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많았고 실제로 바쁘게 생활했지만 그 안에서 뿌듯함과 함께 '나는 잘 해내고 있다'는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 질문에 명확히 대답할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스스로 다잡고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 학군단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군사훈련은 2학년 겨울방학과 3, 4학년 여름방학 이렇게 총 3번 한 달간 이루어집니다. 그중 2학년 기초군사 훈련 때 괴베레스트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곳에서 했던 험난한 행군이 기억납니다. 성신여대 3단 언덕은 걸음마수준으로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20kg 정도 되는 완전군장을 메고 20km를 거의 5시간 가까이 걸었던 훈련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전우애를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성신여대 학군단에 관심 있는 예비 입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 한마디를 해준다면?

↳ 체력은 학군단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 체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늦지 않았으니 최소 한 달 전부터라도 꾸준히 단련하고 관리하길 추천합니다. 제가 입단할 때는 총 3번의 면접(면접토론, 국가관이나 안보관에 대해 면접, 일반 면접)이 있었는데 어떤 면접이든 진정성 있게 자신감 있는 태도로 당당하게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올해 계획과 더불어 앞으로 육군 장교로서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 무엇보다 건강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해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제 오랜 꿈은 '누군가로부터 존경받는 롤모델이 되는 삶 살기'인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아직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초임 장교이지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신뢰를 쌓고 믿을 수 있는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성 장교로서 후배들한테 좋은 롤모델이 되어 더 많은 여성 인재들이 군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버려지는 자원에 사회적 메시지를 입혀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다

♪ 박미현 터치포굿 대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2009년 졸업)



‘버려지는 자원과 버리는 마음을 터치한다’는 소셜 미션으로 2008년부터 사회적 기업 터치포굿을 운영하는 박미현 대표.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창업하고 폐기물과 환경에 대한 교육, 캠페인, 창업 지원까지 한길을 독심있게 걷고 있는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버려지는 자원이나 폐기물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 학창 시절부터 ‘사람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늘 있었어요. 당시 NGO 봉사활동을 하면 1학점을 주는 교양과목을 수강했는데 시민단체 활동에 참가하면서 정치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좋은 메시지와 의도를 보여줘도 시민단체는 사람들로 부터 외면받았어요. 그러던 중 사회적기업을 접했어요. 사회적기업은 기부 대신 제품 생산과 판매로 사회문제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덜 외면받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국내 사회적기업은 초기 단계라 일할 곳이 적었고 자연스럽게 창업으로 이어졌어요. 업사이클링을 아이템으로 삼은 건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무관심한 주제였고 쓰레기 문제를 알리고 싶었어요.

💬 그렇게 시작한 터치포굿이 처음 선보인 제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 첫 제품은 현수막 업사이클링 에코백이었어요. 당시 제가 학교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매번 한쪽에 폐기할 현수막이 보이더라고요. 학교에 문의해 가져가도 된다는 동의를 얻고 수거해 제품을 만들었어요. 당시 현수막 업사이클링 제품은 많았는데 사용자를 위한 제품 품질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어요. 질 좋은 제품을 만들자는 게 터치포굿의 차별점이었죠. 이후 선거 현수막을 활용하는 ‘5년의 약속’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후보별 리미티드 에디션 에코백을 디자인하고 선거 후보 등록부터 개표까지 사전 판매 방식으로 이뤄졌어요. 이 캠페인으로 서울 등 8개 지역에서 소각되는 현수막이 하나도 없었죠. 한편, 당선자 제품만 안쪽 주머니에 공약을 새겨 지지자에게 약속하고 당선자에게는 약속 이행을 당부하는 의미를 부여했어요.

💬 의미가 또 좋은 제품들을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호주 산불로 화상 입은 코알라의 치료비 기부를 위해 제작했던 코알라 담요 인형도 있습니다. 제품을 기획했던 2020년 당시 호주 산불이 6개월간 지속되고 있었어요. 호주 코알라가 화상으로 다치거나 죽는 일이 너무 많았죠. 삶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소중한 생명을 위한 기부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만들었습니다. 펠트병을 재료로 해 인형을 펼치면 담요가 되는 실용성 있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 제품은 국내-외 기후위기동물 6종을 알리는 생물 다양성 라인을 만들게 된 기반이 되었습니다. 최근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품은 경주박물관 굿즈인 약사여래 찜질 핫팩입니다. 리모델링한 경주박물관의 재개관 당시 공익 굿즈 입점 기회를 얻었는데 출시 이후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을 타 품질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 상품 제작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기획 단계부터 소셜 미션에 맞는지 검증하고 제작해요. 터치포굿 제품은 중량제 봉투에 담기는 쓰레기를 우선적인 재료로 사용해요. 앞서 소개한 코알라 담요 인형도 플라스틱이 모두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고 이를 활용하자는 생각에서 시작했어요. 또 다른 철학은 ‘쓰레기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게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자’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선거 현수막에 공약을 넣은 것도, 유소년스포츠대회 현수막의 업사이클링 에코백에 참가 청소년들이 존경하는 국가대표 사인들을 받아 넣은 것도 제품에 대한 애정과 의미를 주고 싶었어요.

💬 현재 대표님의 행보에 영감을 준 20대 학창시절의 경험이나 공부가 있을까요?

↳ 제 전공인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각도로 보는 자세였어요.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원인을 세계 정세나 이념뿐만 아니라 나치 집권을 한 히틀러의 유년시절, 주변환경까지 고루 살피는 거예요.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는 한 줄이 확장되고 넓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또, 제가 참여했던 모의국회 준비위원회라는 전공 학회 역시 한 학기 한 가지 주제를 정치, 사회, 법적 근거로 접근하고 토의해요. 그걸 바탕으로 연극을 준비하는데요. 이런 경험을 통해 사회문제가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연결돼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죠.

💬 앞으로 대표님의 목표, 계획이 궁금합니다.

↳ 환경을 오래 고민해 온 입장에서 기후테크 분야도 발굴하고 있어요. 버려지는 쌀을 활용해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최근 특허 취득해 환경부 지원을 받고 있고요. 유통기한 3년이 도래해 폐기를 앞둔 마스크를 철사만 빼고 재활용해 업사이클링 실을 제작하려고 해요. 최근 기후테크 붐이 일며 업사이클링이 등한시되고 있지만 두 분야는 나란히 병행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두 가지 모두 놓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갈 예정입니다. 터치포굿은 질 좋은 쓰레기가 계속 나와야 영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젠 회사 설립 목적에 맞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폐기물이 사라져서 잘 망하는 게 목표입니다. (웃음)



성신여자대학교 CSE Lab(Convergence Security Engineering Laboratory)은 9년 동안 56명의 연구원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눈부신 성과를 쌓아가며 그 속에서 각자 어떤 배움을 선택할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을 어떻게 마주할지를 스스로 선택해 나가는 곳이다. 연구자로서뿐 아니라 한 사람의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에 몰두하고, 매일매일 그 답을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배움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 CSE Lab 사람들을 만났다.

융합보안 연구의 새로운 기준! 자발적 배움의 본질을 찾는 CSE Lab

첨단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성신여대 CSE Lab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이일구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기술 환경에 발맞춰 보안 패러다임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융합보안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죠. CSE Lab에서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현장 중심의 경험을 쌓으며 AI 융합기술, 산업 보호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김연진 현재 박사과정 9명, 석사과정 6명, 학석사 연계과정 5명, 학부 연구생 16명까지 총 36명의 학생들이 CSE Lab에 소속되어 있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인공지능, 네트워크, 사물인터넷 등과 관련된 활발한 융합 보안연구로 정보보호 기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내 정부지원 사업 선정, SCIE급 저널 논문 게재 등 우수한 연구 역량을 인정받으며 많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 눈여겨볼 만한 성과가 있다면?

이일구 지금까지 정보보호특성화 대학지원사업, 정보통신방송혁신 인재양성사업 등 약 72억 원 규모의 정부지원금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적인 노력 덕분에 국내 최대 규모 공모전인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에서 특허청장상,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고 2024년 전국대학 산학협력 프로젝트 챌린지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뿌듯합니다.

심혜연 CSE Lab은 학생들이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대학원생이 과제 책임자가 되고 학부연구생이 연구 참여자가 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해 2025 ASK 학술대회에 투고했는데 10편 넘는 논문이 실린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일구 교수
융합보안공학과



4년째 꾸준히 기부를 해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일구 학생들은 국가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의 일부를, 교수진은 전액 기부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기부금이 1,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전적 나눔의 의미를 넘어 가치 실현을 통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바꾼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부를 실천 중입니다.

심혜연 기부는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진 연구자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연구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도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고, 기부도 꾸준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심혜연 학생
일반대학원 미래융합기술공학과 박사과정

9년간 CSE Lab의 구심점으로 활약해오신 교수님이 성신여대 첫 특훈교수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일구 첫 번째 특훈교수가 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학생들이 CSE Lab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여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인데요.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만큼 더욱 도전적인 모습으로 큰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와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진 학생
일반대학원 융합보안공학과 석사과정

CSE Lab이 꿈꾸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심혜연 보안 분야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랩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싶어요. 학문적인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을 동시에 갖춘 모범적인 연구 공동체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진해나갈 것입니다.

김연진 CSE Lab은 다른 Lab과 달리 특정한 세부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보안 전반에 걸쳐 폭넓은 주제를 다룰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여러 분야를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일구 연구 역량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성장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면 더 깊이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죠. CSE Lab은 학생들이 마음껏 도전하되, 실패와 성취가 모두 허용되는 샌드박스 같은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면서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자로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갖춰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연진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세 가지 역량이 있는데요. 바로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호기심, 세운 가설을 검증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근성 그리고 실험이 잘 안 될 때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직접 겪어보니 이 세 가지가 연구자로서 꼭 갖춰야 하는 기본 역량인 것을 알겠더라고요.

이일구 공부와 연구는 달라요. 정해진 문제를 푸는 과정이 공부라고 한다면 연구는 답이 없고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과정이죠.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호기심, 해낼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해보겠다는 근성이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은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심혜연 연구는 학회 참석과 논문 탐색을 통해 어떤 분야를 연구할지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종래의 연구나 기술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한계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를 떠올리죠. 중간중간 교수님과의 정기적 미팅이나 학생들 간 팀 회의 및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켜가고 마지막으로 논문 작성과 특허출원 등의 성과화로 연구를 마무리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에는 외국인 국제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동아리, '성신서울산책클럽'이 있다. 이름 그대로 서울 곳곳을 산책한다. 한국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친구들에게는 서울의 역사를 발로 걷고 눈으로 보며 경험할 기회가 주어진다. 서울 곳곳을 둘러보고 싶고, 한국 생활에 재미를 찾고 싶었던 이들은 '성신서울산책클럽'으로 남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성신서울산책클럽'의 멤버인 바트호약 몽흐진, 아디안티 데니타 유니, 리티엔위 세 사람을 만나 동아리 활동기를 들어봤다.

👥 국제학생 동아리, 성신서울산책클럽 — 우리는 서울을 거닐며 — 한국 문화를 경험해요



INTERVIEW :

-   몽골
바트호약 몽흐진(BATKHUYAGMUNKHJIN)
-   중국
리티엔위(LI TIANYU)
-   인도네시아
아디안티 데니타 유니(ADHIANTI YUNIDENTA)

끼니도 든든하게, 마음도 든든하게 채우다

'성신서울산책클럽'의 또 다른 모미는 먹거리다. 산책 이후에 다 같이 모여 점심이나 저녁을 먹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이 모이기 때문에 종교적 이유로 먹지 못하는 돼지고기, 소고기를 제외한 메뉴로 선택하고 있다. 세 사람이 가장 인상적인 점심으로 꼽는 것은 신당동 떡볶이 타운에서 먹은 떡볶이다. 유니는 메뉴도 맛있었지만 무엇보다 떡볶이타운에 나아가 지긋한 어른들로 가득했던 게 잊을 수 없다. "당시 어른들로 가득해 그 모습이 신기했는데 돌이켜보니 레전드 맛집 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리티엔위가 가게 직원을 '이모'라고 부르며 튀김만두를 계속 추가해 먹었다는 후일담을 나누며,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리티엔위는 동아리 활동 사진을 부모님께 전송해 안부를 전하곤 한다. "한국에서 지내는 아들의 건강하고 밝은 모습에 기뻐하세요" 몽흐진은 '성신서울산책클럽'을 통해 한국 생활이 바뀌었다. 친구들과 서로 맛집이나 산책 코스를 공유하면서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즐기는 맛을 알게 되었다. 유니는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 선생님과 한국어로 소통하면서 언어도 더 풍부해졌다. 더욱 다채로워진 한국 생활에 세 사람은 성신여대에 온 외국인 학생들이 더 많이 동아리에 참가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어 수 있고, 각자 다른 루트로 성신여대에 온 친구들의 학업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어요. 한국어도 더 늘고, 즐거운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어 든든해요"라고 말하는 유니의 말에 리티엔위는 중국 친구들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덧붙인다. 많은 성원을 받은 성신서울산책클럽은 앞으로도 더 많은 외국인 학생의 한국 생활에 즐겁고 든든한 동아리로 거듭날 예정이다.

명소도 가보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는 기회

어느 날 학교로부터 이메일 하나를 받은 세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뜨었다. 외국인 국제학생들을 위해 '성신서울산책클럽'이라는 동아리가 생긴다는 소식이었다.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는 동시에 서울의 명소들을 둘러보며 여러 체험도 할 수 있겠다니, 일거양득이라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지원했다. 중국에서 온 리티엔위가 "한국어학당의 반 친구들 말고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저는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편이 아니기도 해서 동아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친구도 만들고 대화도 많이 나누며 한국어가 늘지 않을까 기대하며 지원했어요"라고 말하자 옆에서 들던 두 사람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한국어학당에서 1급부터 6급까지 수료한 몽흐진도 그동안 들었던 동아리들과는 다르고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무조건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학기 '성신서울산책클럽'은 서울의 대표적인 장소인 북촌과 남산을 걷기도 하고 달빛과 불빛이 아름답게 물든 광화문과 창경궁에서 밤 산책을 즐기기도 했다. 그중 몽흐진과 유니의 기억에 오래 남은 것은 우리소리박물관에서 배운 사물놀이. 수업시간에만 들던 사물놀이의 네 가지 악기를 직접 연주해볼 수 있어 즐거웠다. 두 사람과 다르게 리티엔위에게는 남산걷기대회 날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남산에 자욱하게 안개가 껴요. 모습이 신비롭고 아름다웠어요" 최근 이들은 서울생활사박물관에 방문해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보던 광고, 포스터, 간식들을 눈으로 직접 마주하며 서울의 과거로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성신여자대학교 바이오헬스융합학부 식품영양학 전공 동아리 '푸드켓'은 학과 수업을 통해 배우는 지식에 더해 현업에 가까운 지식과 실전을 쌓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동아리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재학생들이 (사)식생활교육학회에서 주최한 식생활교육매체대회에서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졸업 후에는 식품산업 분야에서 활약하는 많은 동문을 배출시키고 있기도 하다. 2025년 5월, 푸드켓은 '졸업 선배와의 만남' 행사를 열고 후배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듣고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시간을 보냈다.

바이오헬스융합학부 식품영양학 전공 동아리 '푸드켓'

산업을 이해하고 실습하며 전공을 더 깊이 이해합니다

← 식품 산업을 이해하고 실습으로 실전을 익히다

'푸드켓'은 '푸드'와 '마케팅'의 합성어로 레시피 개발, 브랜드, 마케팅 등 식품 산업을 탐구하는 바이오헬스융합학부 식품영양학 전공의 특별한 동아리다. 매주 식품 브랜드에 대한 분석을 직접 해보며 동아리 부원들과 토의하고 박물관이나 풀무원, 아워홈 등 국내 굴지의 식품 브랜드 기업에 견학을 다니며 식품과 산업 전반에 지식을 쌓는다. 또, 전공을 통해 배운 지식과 실습을 바탕으로 매년 자체 레시피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푸드켓'이 개발하는 레시피에는 그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헬스푸드 업계의 트렌드가 담긴다. 지난 2023년 저당(Low Sugar)과 비건(vegan)을 주제로 한 학기씩 진행한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쿠킹클래스'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진행해 많은 동아리 부원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설문지를 통해 인식 조사를 하고 학교 인근 비건 식당 지도를 만들어 알렸다. 그렇게 여러 차례 테스트를 거쳐 개발한 비건 쿠키와 오코노미야키로 "비건이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쉬운 거라면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지역주민의 반응까지 얻었다. 올해는 저속노화 식단이 콘셉트로, 두유와 시래기로 만든 리조토를 개발했다. "리조토가 나오기 전까지 말차 수제비, 두유 푸딩 등 다각도로 레시피를 개발했어요. 여러 실패 중 드디어 알맞은 레시피를 찾았습니다.(웃음) 좀더 발전시키면 완벽해질 것 같아요. 올해는 4050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클래스를 진행하고 싶어요" 김민지 학생(23학번)이 자신감 있게 올해 계획을 이야기한다.



INTERVIEW :

김민지
바이오헬스융합학부
식품영양학 전공 23학번

최진실
舊식품영양학과
(2021년 졸업)

권세연
바이오헬스융합학부 식품영양학 전공
(2025년 졸업)



Food Marketing



← 뜨거운 열정과 실행력 넘치는 동아리, 경험과 추억이 차곡차곡

이날 인터뷰에는 참여한 바이오헬스융합학부 권세연 동문(2025년 졸업)과 최진실 동문(2021년 졸업) 그리고 재학생 대표인 김민지 학생(23학번), 세 사람에게 동아리를 하면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가장 먼저 김민지 학생이 '선배들과의 교류'를 꼽는다. "평소 동아리 선배들과 대화 나누며 얻는 정보들이 많아요. 오늘도 선배와의 만남이라는 시간을 통해 식품회사에 재직 중인 선배, 식품 전문 마케팅 회사에 근무 중인 선배,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선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졸업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뜻깊었어요"

지난 2023년 '푸드켓'은 'MZ세대의 식습관'을 개선하는 교육 자료와 팸플릿을 기획해 (사)식생활교육학회에서 주최한 식생활교육매체대회에서 금상인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권세연 동문은 "우리 세대의 식습관은 우리가 제일 잘 안다는 생각으로 'MZ세대 SICK습관을 ALL바르게'라는 영상과 교육 리플릿을 제작해 선보였어요. 당시 마라탕과 탕후루가 유행했는데 이를 소재로 삼아 좋은 식습관을 스토리텔링하면 좀 더 쉽게 다가갈 것 같았죠. 그 아이디어가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아요"라며 교수님께 도움도 얻으며 시야를 넓히고 이론을 실제로 활용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을 손꼽았다. 최진실 동문은 '푸드켓'은 '실행력을 얻게 해준 동아리'라고 칭했다. 그는 당시 학교 국제교류지원팀이 진행하는 글로벌 프리젠티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전통 차 문화를 연구하러 떠났던 6박 7일의 일본 여행은 두고두고 기억난다고 말했다. 일본 대학과 문화 교류 시간에 한국 다도 문화를 보여주자 한 사람당 2개씩 캐리어를 끌고 다녔던 힘들도 이젠 좋은 추억이 되었다. "한여름 일본에서 녹아내릴 것 같았어요. 무척 힘들었지만 돌이켜 보니 행복했고 영감이 많이 얻었어요"라며 '푸드켓'을 통해 스스로 놀랄 만큼의 추진력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학교 지원도 다양하고 교수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찾아서 도전해보면 풍성한 학교생활이 될 거라는 두 선배의 이야기에 올해 동아리 회장인 김민지 학생의 반짝이는 두 눈엔 열정과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그동안 쌓아온 동아리의 역량과 학생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그리고 든든한 교수님의 서포터로 또다른 결실을 맺어낼 '푸드켓'의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



Together for Tomorrow

3

PART 3 * LIVE TOGETHER

SUNGSHIN EVENT 1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로 특별한 음악의 밤을 열다

SUNGSHIN EVENT 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제2회 성신 크리스탈 음악 콘서트

ESG SUNGSHIN

ESG 활동을 통해 미래지향적 가치를 실현하다

3C SUNGSHIN

광고를 통해 '성신다움'을 이야기하는 성신코어 3C

VIOLET SUNGSHIN

바이올렛으로 물들다 성신여자대학교의 성신 바이올렛 아이템

SUNGSHIN PLACE

이게 바로 캠퍼스 뷰 맛집! 여기 어때? 성신핫플

SEASON SUNGSHIN

시간표보다 더욱 기억에 남는 캠퍼스의 풍경 성신여자대학교 사계절.zip

TWINKLE SUNGSHIN

성신여자대학교를 빛낸 이름들

SUNGSHIN SNS

Follow Us!

DONATION NEWS

성신여자대학교 음악대학 x 지역주민 초청 오페라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로 특별한 음악의 밤을 열다

성신여대 구성원이 직접 참여한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성신여대가 지난 2024년 12월 운정그린캠퍼스 대강당에서 오페라 공연 '헨젤과 그레텔'을 선보였다. 이 공연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서 양일간 가족 동반 관객 등 약 1천여명의 관객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독일 전래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원작으로 한 공연은 출연자들이 모두 성신여대 학부생과 대학원생 출신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했다. '헨젤'역을 맡아 무대에 오른 성악과 나예지 동문(2025년 졸업)은 "평생을 여성으로 살아오다 보니 남자, 특히 어린 남자아이를 표현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다"며 "관찰을 통해 연습 전부터 만화, 애니메이션, 숏폼 영상 등을 다양하게 참고하며 남자아이들의 말투와 행동을 매일 분석했다"고 연기의 비화를 밝혔다.



성악과 동문 출신의 박지현 교수도 "좋은 무대를 위해 애써주었던 조교들, 자정까지 바느질하며 의상을 완성해 준 조연출과 스태프들, 오페라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오페라의 성공을 함께 기원하며 조명 밖에서 제자리를 지키며 함께 해 준 성악과 학생들 모두에게 매일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았다"며 무대를 함께 만든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처럼 다채로운 음악과 연기에 눈을 땔 수 없는 다양한 연출로 하여금 꼬마 관객부터 어른까지 사로잡는 무대는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어우러져 금상첨화를 이루었다. 음악대학 성악과 학생들의 공연을 비롯 무대 세트, 오케스트라 연주 등 수준 높은 공연으로 관객들의 호평 세례를 받은 이번 공연은 '오페라'라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장르에도 불구하고 공연 전 전석이 예약되며 큰 기대를 모았다.



다가오는 2025 성신 오페라 공연

공 연 명 | Die Zauberflöte 마술피리
공연일정 | 2025년 11월 21일(금)~ 22일(토)
공연장소 | 성신여자대학교 운정그린캠퍼스 대강당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76가길 55)

앞으로도 계속될 성신여대의 오페라

예술은 누군가 그 가치를 알고 지켜주지 않으면 가장 먼저 사라질 수 있는 분야다. 그렇기에 **오운주 음악대학 학장은 "음악이 현대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고민하고 그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음악대학 공연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며, "정통 클래식을 기반으로 하되 대중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기획해 진정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 지역사회의 많은 가족 단위 관객들이 함께 오페라 공연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성신이 가진 인프라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일에 큰 보람을 느꼈다"며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모범 사례를 보여준 한국교육문화재단과 KB국민은행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성신여대의 성악과는 앞으로 남은 공연 준비로도 분주하다. 25년 11월에 예정된 오페라 공연이 있기 때문이다. **성신여대는 이번에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연으로 기획해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한 문화 예술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성신여대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제2회 성신 크리스탈 음악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개교 60주년을 기념해 돈암 수정캠퍼스 수정홀에서 열린 이번 음악 콘서트는 지난해에 이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 교류 행사로 진행됐다. 성신여대 교직원 및 학생, 발전기금 기부자, 국제학생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북구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을 초청해 330여 명이 한자리에 함께했다. 처음 학교를 찾는 지역주민들도 길을 찾기 쉽도록 안내가 담긴 팸플릿을 배부하여 성신여대는 음악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시간의 의미를 더했다.

음악 콘서트는 코리안 챔퍼 오케스트라 수석단원이자 포어스트만 콰르텟 비올리스트인 김재운 지휘자의 유쾌한 연주곡 설명이 가미된 해설형 클래식 무대로 꾸며졌다. 또한 성신여대 음악대학 기악과 3~4학년 학부생 29명으로 구성된 성신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았으며, 협연에는 성신여대 기악과 교수이자 국내 최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인 피호영 교수가 참여해 깊이 있고 수준 높은 연주로 무대를 빛냈다. 피호영 교수는 몇 년 전 '70억짜리 연주'로 언론에 소개된 바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5월의 따뜻한 봄날, 성신여자대학교가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제2회 성신 크리스탈 음악 콘서트(MUSIC CONCERT)'를 개최했다. 김재운 지휘자와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 기악과 교수 외 성신여대 기악과 학생들이 함께한 콘서트로 떠나본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제2회 성신 크리스탈 음악 콘서트



1부와 2부로 나뉘어 1시간 20분간 진행된 공연은 ▲텔레만의 'Burlesque de Quixotte' ▲크라이슬러의 '바이올린 협주곡 C장조'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Op.48' 등 시대를 풍미한 거장들의 음악이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클래식 음악회에 대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연 전후로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별 이벤트도 눈길을 끌었다. 인터미션 시간 동안에는 성신여대의 굿즈를 이벤트를 통해 뽑거나 성신여대의 마스코트인 수룡이와 함께 사진을 찍는 '어린이 관람객 이벤트'가 진행되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음악 콘서트의 따뜻함을 더했다.

이원호 성신여대 교학부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 성북구와 함께 발전한 성신여대가 올해 개교 60주년을 맞아 성신여대와 지역사회가 음악이란 단어로 하나되어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뜻깊다"며 "앞으로도 성신은 학교가 가진 콘텐츠를 교내 구성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공유 가치 실천을 통해 동반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936년 윤정 리숙중 박사가 설립한 성신여학교를 모태로하고 있는 성신여대는 1965년 4년제로 전환된 성신여자사범대학이 출범한 해를 개교의 기점으로 하여 이를 기념해 오고 있으며 올해 성신학원 창립 89주년 및 개교 6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축하행사를 기획, 진행하고 있다. 1회에 이어 2회까지 성황리에 마친 '성신 크리스탈 음악 콘서트'를 통해 성신여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문화 증진에 힘쓸 예정이다.



성신여자대학교는 ESG를 중심으로 한 교육, 연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 관리와 새로운 도전을 통해 ESG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

ESG 활동을 통해 미래지향적 가치를 실현하다



E



국제교류지원팀x국제학생회, 성북천 플로깅 봉사활동 진행

성신여대 국제교류지원팀과 국제학생회(SISA)가 2024년 6월, 국제학생 성북천 플로깅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본교 어학연수, 학부,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몽골, 베트남 등 외국인 유학생 16명과 국제학생회 소속 내국인 학생이 참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학생들은 성북천 산책로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까지 청소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플로깅 활동에 임했다. 이번 활동으로 국제학생들은 성신여대 인근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으며 주민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응원을 받았다.

E

이성근 총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참여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이 2024년 6월,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ByeBye Plastic) 챌린지'에 성신여대 교직원, 재학생, 국제학생과 함께 참여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지난해 8월 환경부에서 일상 속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시작한 범국민 참여형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 챌린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의미를 담아 손을 흔드는 사진 또는 영상을 SNS에 게재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챌린지에 참여한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20세기 초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던 플라스틱은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사용되며 편리함을 제공하면서도 환경을 파괴하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며 "플라스틱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모이면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성신여대 전 구성원들과 함께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소비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E

제로웨이스트 캠퍼스 축제 '2025 성신을 따라가봄'

성신여대가 2025년 4월 1일부터 2일, 양일간 수정캠퍼스와 운정그린캠퍼스 잔디밭에서 '성신을 따라가봄'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평소 학업과 취업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재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됐다. 제로웨이스트 간식 나눔 행사, 요가 및 매트 필라테스 외에도 버스킹 공연, 플라마켓과 포토월, 사진 인화, 보물찾기, 썰매이스, 페이스페인팅, 네일스티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행사 첫회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제로웨이스트 간식 나눔 행사는 성신의 ESG 경영 철학이 반영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친환경 소비 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에 옮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성신여대 나눔옷장 의류 기부 효과 >

- 물 1,950만 리터 절약
- 약 228톤 탄소 절감
- 나무 23,400그루 식재 효과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이벤트 '나눔옷장'

'나눔옷장' 행사는 서울시 캠퍼스타운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캠퍼스타운 상생 페스타 '모두의 마켓 모두의 나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시작됐다. 그 결과, 성신여대 구성원을 포함하여 의류 나눔과 자원순환 가치에 공감하는 2,000여 명의 참여자가 전국 각지에서 옷을 기부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또한 행사 당일에는 1,000여 명이 오픈런을 불사하며 현장을 방문해 긴 대기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다. '기부와 교환'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자원순환의 가치를 구현해낸 모습이었다. 돈암 수정캠퍼스에서 진행된 나눔옷장 행사장에는 사전 기부 및 현장에서 기부 받은 총 1,950여 벌의 다양한 브랜드 의류가 전시됐다. 오후에는 슈퍼스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가 진행하는 '내 스타일 만들기' 프로그램도 진행되어 방문객들이 나눔에 참여한 의류 스타일링을 도우며 호응을 얻었다. 행사를 준비하며 성신여대 교직원들은 의류생산 및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행사 당일 성신여대를 방문한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원 순환을 위한 행사인 만큼, 참가자들은 배부되는 비닐봉지가



생분해성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그냥 들고 가거나 작은 가방에 옥여넣거나 껴입고 가는 등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이며 훈훈한 광경을 자아내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성신여대 스포츠과학부 최유정 학생(20학번)은 "이번 행사의 좋은 취지에 공감해 잘 입지 않는 옷들을 기부하고 다른 분들이 기부한 옷 중에 마음에 드는 옷으로 교환하게 되었다"며 "버려지는 옷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의류 재사용 캠페인인 나눔옷장을 통해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어 뿌듯했다"고 말했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우리 구성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옷장을 통해 ESG 실천에 함께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상생, 환경보호를 비롯한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성신이 포용적 캠퍼스의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행사 후 남은 의류는 다시 선별 작업을 거쳐 전국에 제공을 희망하는 미혼모, 다문화 가족, 노숙자 지원센터 등 7곳에 전달되어 활용되어 더욱 그 의미를 더했다.



'2024 모두의 미술, 모두의 컬렉션 아트페어' 개최

성신여대 캠퍼스타운사업추진단이 운정그린캠퍼스에서 2024년 10월, '모두의 미술, 모두의 컬렉션' 아트페어를 개최했다. 이번 아트페어의 주제는 'Finding Hidden Treasure in Gangbuk(강북의 숨은 보물을 찾아서)'로 지역 내 신진 청년 작가를 발굴하고, 새로운 작품들을 발견할 수 있는 아트마켓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개막식을 맞아 성신여대 박물관 임상빈 관장이 '현대미술 속 자화상'을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했다. 성신여대 캠퍼스타운사업추진단이 주관하고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이 지원한 이번 아트페어는 강북구 내 문화 예술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구현하고자 기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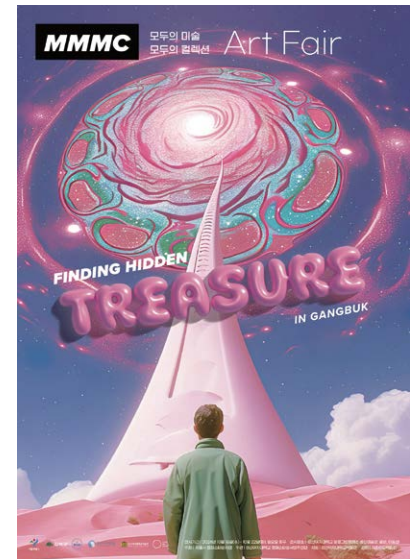
안전한 성북구를 위한 'Bright 성북 순찰대' 활동 실시

성신여대는 지난 2022년부터 성북경찰서와 함께 'Bright 성북 순찰대' 봉사단을 운영하며 성북구 일대 치안 강화 활동에 나서고 있다. 'Bright 성북 순찰대'는 "성신여대와 성북경찰서가 힘을 합쳐 성북구를 밝힌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제218학군단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과 공동체 치안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2025년 4월에는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성신여대 기숙사 및 캠퍼스 인근 동선동 일대 여성안심귀갓길과 원로촌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에는 성신여대 제218학군단과 교직원 등 총 21명이 참여해 실제 생활권 내 치안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지역 안전망 구축에 기여했다. 'Bright 성북 순찰대'는 연 2~3회 정기 순찰을 통해 성북구 일대의 치안 취약 지역을 살피고,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순찰 활동을 정례화해 치안 취약 요인을 공유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지역 내 지속가능한 치안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ESG 위원회 설치를 통한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성신여대는 단순히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고 지난 2024년 11월, ESG 추진 체계를 신설했다. 법무감사실, 성신인권센터, 연구윤리센터, 기관생명윤리센터, 연구진실성위원회 등을 통해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성신여대는 ESG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대학 내 ESG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전담 조직을 강화한 후, ESG 관련 전공 및 교양 강좌를 신설하고,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ESG 필수 교과목도 도입할 예정이다. ESG 연구와 실천의 모범 사례를 글로벌 사회에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성신여대의 미래가 기대된다.



성신여자대학교는 이미지 광고를 통해 '성신다움'을 시각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그 안에는 성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가치인 협력(Collaboration), 협동(Cooperation), 연결(Connectedness)이 녹아 있다.

광고를 통해 '성신다움'을 이야기하는 성신코어 3C



Collaboration



나를 찾는 곳, 내가 되는 곳

2024학년도 성신여대 광고에서는 성신의 상징색인 성신 바이올렛 바탕에 자신감 가득한 학생이 등장한다. 문구 역시 눈에 띈다. '성신, 새로운 가치의 인재를 키웁니다. 최고를 넘어 창의적 인재로, 최고를 넘어 미래적 인재로'라는 문구는 성신여대가 지향하는 교육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학생 각자의 정체성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 속에서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철학이 담겨있다. 이는 학생과 대학, 학생과 사회 간 '협력' 한다는 키워드와 연결된다.

Cooperation



성신 BEYOND THE BEST 세계와 같이, 성신같이

2025학년도 성신여대 광고는 학교의 상징인 수정구를 두 손에 소중히 감싸 안은 장면을 통해, '세상과의 협동'을 이야기하는 방향성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세계와 같이, 성신같이'라는 슬로건을 토대로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협동'의 교육철학을 시각화했다.

- 성신여대의 광고는 매해 조금씩 달라지지만, 그 안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 분명하다.
- 성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응원하고, 서로 다른 배경과 꿈을 가진 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과정을 따뜻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해마다 새롭게 전개되는 광고 속 이야기들은 성신이 추구하는 3C(Collaboration, Cooperation, Connectedness)와 진심을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전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Connectedness



성신 BEYOND THE BEST 성신이 잇기에 세상이 있다

2025학년도 광고에 이르러서 성신여대는 글로벌 감각과 공동체 정신을 더욱 강조했다. 지구본을 중심으로 국내·외 학생들이 마주 앉은 모습은 '세계와의 연결'이라는 주제를 전한다. 국적, 언어, 전공을 넘어서는 연대와 공존의 가치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성신여자대학교의 상징 컬러인 성신 바이올렛(Violet)은 지성과 품격 그리고 창의성을 상징한다. 이 특별한 성신 바이올렛 컬러는 성신 교정 곳곳과 다양한 공식 기념품에 깃들여 우리 학교의 정체성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학위복 등 성신 바이올렛 컬러가 적용된 다양한 아이템을 소개한다.

바이올렛으로 물들다 성신여자대학교의 성신 바이올렛아이템

Beyond the Best!



휘장 & 학위복

성신여대의 휘장은 전통성과 상징성을 담은 공식 문장으로, 성신 바이올렛을 중심 컬러로 사용하여 성신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졸업식에 착용하는 학위복 또한 성신 바이올렛 컬러로 장식되어 학문적 성취와 성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표현한다.

성신 바이올렛을 품은 성신여대 만년 다이어리와 탁상용 북 캘린더는 실용성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동시에 갖춘 제품이다. 특히 ESG 가치를 반영한 만년 다이어리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성신의 교육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더불어 탁상에 놓기만 해도 분위기를 살려주는 탁상용 북 캘린더는 학교 행사와 학사 일정은 물론 감각적인 디자인 속 성신 바이올렛 포인트로 감성을 더한다. 마찬가지로 상징 컬러를 담은 펜 2종 세트는 차분한 성신 바이올렛과 은은한 라벤더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깊이 있는 성신 바이올렛 펜은 정돈된 분위기의 필기용으로, 부드러운 라벤더펜은 가벼운 메모 및 다이어리 꾸미기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만년다이어리 & 성신바이올렛펜



성신우산

성신 바이올렛 컬러의 우산은 빗속에서도 성신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실용적이면서도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높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신을 떠올릴 수 있다.



상장케이스

학교에서의 성장과 성취를 담아내는 상장은 그만큼 특별한 케이스가 필요하다. 성신 바이올렛 컬러가 더해진 상장 케이스는 학위 수여는 물론 다양한 수상의 의미를 한층 더 빛나게 해준다.

Goods Keyring

성신여대의 공식 캐릭터 '수롱이'가 성신 바이올렛 컬러를 장식한 귀여운 키링으로 탄생했다. 작지만 존재감 있는 디자인으로 가방이나 열쇠, 필통 어디에나 잘 어울린다.



수롱이키링

Ueee

T-shirt 성신티셔츠

성신 바이올렛 컬러를 입힌 티셔츠는 활동하기 좋은 핏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수업, 동아리, 소모임까지 어디서든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다. 성신의 감성을 담은 진짜 캠퍼스웨어!



Fides
Novitas
Sui Juris

이게 바로 캠퍼스 뷰 맛집! 여기어때? 성신탱플?

성신여자대학교는 드라마 촬영 맛집으로 알려질 정도로 아름다운 캠퍼스 전경을 자랑한다. 그 중에서도 휴식을 즐기기도 좋고, 공부하기에도 좋아 학생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공간들을 소개한다.



7운정그린캠퍼스의 하늘정원



8수정캠퍼스의 수하루

여기 어디야? 우리 학교야! 전망 좋은 #뷰맛집

운정그린캠퍼스의 '하늘정원'은 P동 8층에 위치해 있는 학생들의 쉼터로,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장관을 이룬다. 수정캠퍼스 성신관 5층에 위치한 '수하루'는 '수정인들이 노는 하늘마루'라는 뜻을 담고 있다. 탁 트인 창밖으로는 캠퍼스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이곳에서는 천원의 아침식사 외 카페 음료를 즐기며 공부를 하거나 쉬어 갈 수 있다.



8'성신을 따라가봄' 행사에서 잔디밭에 누워 휴식을 취하는 학생들



봄가를 제철코어 제대로! 캠퍼스 낭만에 딱인 #피크닉장소

캠퍼스의 로망을 제대로 실현하는 잔디밭은 수정캠퍼스와 운정그린캠퍼스 모두 드넓게 펼쳐져 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피크닉을 즐기기도 하고 축제 및 행사를 즐기며 캠퍼스의 낭만을 마음껏 누린다.

공강·휴강에는 이곳으로! #휴식공간



8운정그린캠퍼스의 글로벌라운지



8운정그린캠퍼스 S-nap zone

성신여자대학교의 캠퍼스는 수정이들의 빛을 받아 사계절 내내 반짝인다. 봄이면 설렘과 반가움이 벚꽃처럼 피어난다. 초여름이면 파란 하늘 아래 잔디밭이 햇살에 반짝이고,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의 열기가 무더위를 이긴다. 가을을 맞아 단풍으로 물든 캠퍼스에는 축제의 기대감이 감돌고, 겨울에는 눈 덮인 캠퍼스가 고즈넉한 풍경을 만들어내며 다시 새학기 학생들을 기다린다.

시간표보다 더욱 기억에 남는 캠퍼스의 풍경

성신여자대학교 사계절.zip

SPRING·봄



2월 25일, 2025학년도 성신여대 신입생 입학식이 열렸다. 2,337명의 새내기가 새로운 수정이들이 된 가운데, 입학식에는 김향기 성신학원 이사장과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을 비롯해 학부모 등 내·외빈이 자리를 함께했다.



새학기의 시작!



운정그린캠퍼스 축제 코드그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플리마켓과 포토존, 각종 체험형 부스 외 공연으로 준비되어 축제의 열기를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운정그린캠퍼스의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미화원 여사님들이 참여한 부스가 함께 운영되어 따뜻한 공동체의 의미를 더했다.



SUMMER·여름



키움 히어로즈-성신여자 대학교 DAY



AUTUMN·가을

수정캠퍼스 축제 대동제



10월에 열린 수정대동제는 공예과 학생들의 공공마켓을 비롯한 각종 부스와 미니바이킹, 수정네킷, 푸드트럭 등 다양한 공연 및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WINTER·겨울

성신의겨울



성신여자대학교를 빛낸 이름들

융합보안공학과 학부생, 사이버전문사관 제1기 후보생 7명 선발



융합보안공학과
구시은, 김민경, 박다연, 심아린, 이서정, 정세형,
현혜연 학부생

성신여자대학교는 다양한 성과 평가 및 국가 사업을 통해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성신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을 통해 사회의 전 분야에 이바지하고 있다.

융합보안공학과 학부생 7명이 2025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재학생 대상 사이버전문사관 제1기 후보생'으로 선발됐다. 사이버전문사관제도는 국내 정보보호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2학년 학부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분야의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방부가 협력하여 운영하며, 제1기 후보생으로 8명이 최종 선발된 가운데, 7명이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학부생이다. 이들은 3~4학년 기간 동안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 후 사이버작전 관련 부대에서 소위로 임관하여 3년간 복무한다. 전역 후에는 취업 및 창업 연계 지원을 통해 전문 인력으로서 거듭날 예정이다.

화학·에너지융합학부 신민정 교수 연구팀, 반고체 전지 성능 향상 및 안정화 기술 개발



화학·에너지융합학부
신민정 교수 **화학·에너지융합학부**
이다은 학부생

화학·에너지융합학부 신민정 교수 연구팀이 2025년 1월, 고농도 전해액을 활용한 계면 물질 개발을 통해 반고체 전지(QSE)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로 각광받고 있는 전고체 전지의 계면 안정성을 해결하고 반고체 전지의 성능 향상을 위해 고농도 액체 전해질(high-concentration liquid electrolyte, HCE)을 소량 도입하여 반고체 전해질 기반 리튬 금속 배터리를 개발에 성공했다. 연구팀의 성과는 에너지 분야 국제 학술지 ACS Energy Letters(IF 19.5, JCR 상위 3.8%)에 'Unveiling Mechanistic Origins of Enhanced Cycling Performance in Quasi-Solid-State Batteries with High-Concentration Electrolytes'(제1저자 이다은, 교신저자 신민정)로 게재됐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성신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2025년 2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성신여대는 지난 2022년 3월,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거점형 운영대학에 선정되었으며 이후 재학생, 졸업생, 지역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활발히 운영해 왔다. 특히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취업 확대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각 지자체단체, 대학이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하며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올해 성과 평가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한 평가위원회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성신여대는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하며 취업 지원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현재 성신여대는 고용노동부의 신규 사업인 '졸업생 특화 시범사업'도 운영 중이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11년 연속 최고 등급 '우수인증대학' 선정



성신여대가 교육부와 법무부가 2025년 2월 발표한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전국에서 우수인증대학 인증을 받은 일반대학은 성신여대를 포함해 총 22개교에 불과하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유학생 관리역량 강화를 통해 한국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과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시행하는 평가제도다. 우수인증대학은 일반 인증대학에 비해 어렵고 까다로운 평가 요건과 지표를 통과하여야만 선정이 가능한데 성신여대는 엄격한 외국인 유학생 선발과 질적 관리로 11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는 쾌거를 거두었다.

'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성신여대가 2025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지원하는 '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 지원사업(석박사과정)'에 3년 연속 선정됐다. '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 지원사업'은 국가핵심 기술과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보안담당자의 산업보안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보안 기획, 관리 등에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갖춘 국내 대학원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국 5개 대학이 사업에 선정된 가운데, 국내 여자대학으로는 성신여대가 유일하다. 성신여대는 3년 연속 이번 선정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석사과정만 지원하는 사업에서 박사과정까지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디지털융합디자인 전문인력양성사업' 선정



성신여대가 2025년 3월, 서비스디자인공학과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디지털융합디자인 전문인력양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디지털융합디자인 전문인력양성사업'은 AI, 디지털헬스케어, 가전, IoT, 로봇 등 미래 성장동력인 디지털융합 디자인 산업을 이끌어 갈 산업계 수요 중심의 석·박사급 혁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주관하에 성신여대, UNIST, 한서대학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행하며 각 대학은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계 수요에 맞춘 석·박사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중 성신여대는 유일한 수도권 대학교 및 여자대학교로서 디지털융합디자인 분야 여성 인재 양성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 산업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발휘할 고급 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다.

'2025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선정, 여성 창업 생태계 조성



성신여대가 2025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지원하는 '2025년 미래여성경제인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은 선배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멘토로 참여해 실전 비즈니스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미래 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사업은 여성CEO특강, 여성기업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성신여대는 여성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창업에 도전하는 여대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실무 중심 창업 프로그램 운영 ▲1:1 맞춤형 창업 멘토링 제공 ▲창업 네트워킹 활성화라는 세 가지 핵심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성신여대 학생들이 자신만의 역량을 발휘하고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진엽 교수, 제31회 '용재신진학술상' 수상



한문교육과 | 장진엽 교수

성신여대 한문교육과 장진엽 교수가 2025년 3월 '제31회 용재학술상'의 용재신진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용재학술상'은 문교부 장관 및 연세대 총장을 역임한 용재 백낙준 박사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한국학 및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업적을 쌓은 신진 연구자에게는 '용재신진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한문교육과 장진엽 교수는 저서 『조선과 일본, 소통을 꿈꾸다: 조선통신사 필담 교류의 역사』(2022, 민속원)를 통해 17~19세기 조선통신사와 일본 문인들의 교류를 150여 종의 필담창화집을 바탕으로 재조명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스포츠과학부 김영주 교수, 제71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연구부문 최우수연구자상 수상



스포츠과학부 | 김영주 교수

성신여대 스포츠과학부 김영주 교수가 2025년 3월 대한체육회가 개최한 제71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연구부문 최우수연구자상을 수상했다. 김영주 교수는 지난 20년간 스포츠 과학 분야, 특히 심재활과 스포츠의학 연구 등에서 90여 편(SCI 40편, KCI 50편)에 달하는 연구논문을 발표하며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연구부문 최우수연구자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2024년 발표한 운동유발성고혈압을 가진 장거리 선수들의 심장 건강에 대한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 임상의학저널(Journal of Clinical Medicine)(IF 3.0, Q1)에 게재되며 해외 학계에서 주목을 받았다.

컴퓨터공학과 김규영 교수 연구팀, KSC2024서 우수논문상 수상



컴퓨터공학과 김규영 교수, 컴퓨터공학과 이지현 석사과정생

성신여대 컴퓨터공학과 김규영 교수와 이지현 석사과정생이 2024년 12월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한국소프트웨어융합학술대회(KSC 2024)'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 논문은 'XDP 기반 인-메모리 키-밸류 스토어 성능 분석'으로, 이지현 석사과정과 김규영 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성과다. 본 논문은 차세대 운영체제 커널 기술인 eBPF/XDP를 활용하여 NoSQL 데이터베이스인 키-밸류 스토어의 성능을 개선한 연구로, 네트워킹 스택 경유 및 컨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처리량과 지연 시간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제31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NetSec-KR 2025) 우수신진연구자상 수상



미래융합기술공학과 | 박나은 박사과정생

성신여대 미래융합기술공학과 박나은 박사과정생이 2025년 4월 서울 삼성동 COEX에서 개최된 '제31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NetSec-KR 2025)'에서 우수신진연구자상을 수상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등 7개 부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이중 박나은 연구원(지도교수 이일규)은 '우수신진연구자' 부문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상을 수상했다. '우수신진연구자상'은 정보보안 분야에서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잠재력을 인정받은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GKS 산학협력(UIC) 수학대학 선정... 해외 우수 이공계 인재 유치 본격화



성신여대가 2025년 6월,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2026~2028 GKS 산학협력(UIC) 수학대학」에 빅데이터사이언스전공으로 신청하여 선정됐다. 성신여대는 향후 3년간(2026년~ 2028년) 매년 5명의 해외 우수 이공계 유학생을 학부 과정에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선발된 학생들은 최대 5년간(한국어연수 1년+학부과정4년)의 등록금 전액과 월별 생활비, 의료보험 등 정부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모집 대상은 미얀마를 포함한 ODA(공적개발원조) 중점 협력 국가 출신 학생들로 설정하였으며, 해외 우수 대학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유학생 유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바이오식품공학과 장혜원 교수 '제3회 KIAST-이대운 학술상' 수상



성신여대 바이오식품공학과 장혜원 교수가 2025년 5월 '제3회 KIAST 이대운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열린 '제74회 한국분석과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진행됐다. 'KIAST-이대운 학술상'은 크로마토그래피 분야(극미량의 성분 분석 기술)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이루고, 학회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국내 질량분석 분야의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혜원 교수는 2023년 12월, 첨단 분석기술을 식품산업에 접목한 융합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ASK 2025' 학술대회서 우수논문상 대거 수상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일반대학원 미래융합기술공학과 소속 연구원 및 학부생으로 구성된 6개 팀이 2025년 5월,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에서 열린 'ASK 2025' 학술대회에서 각종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ASK 2025'는 한국정보처리학회가 주관하는 국내 대표 학술행사 중 하나로, 정보과학 및 기술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성신여대는 이번 대회에서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 소장상 ▲정충연합회 회장상 ▲산학협동 우수상 ▲우수논문상 등 다수의 주요 상을 휩쓸며 우수한 연구 역량을 입증했다.

한혁진 교수 공동연구팀, 세계 최초 위상금속 MoP 결정면 제어 단결정 합성 기술 개발



*청정신소재공학과 | 한혁진 교수, **미래융합공학과 | 김서현 석사과정생

성신여대 청정신소재공학과 한혁진 교수, 동국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최민재 교수, 한양대학교 응용화학과 김병현 교수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이 2025년 6월, 위상금속인 몰리브덴 인화물(MoP)의 결정면을 정밀하게 제어해 단결정 형태로 합성하는 원천기술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공동연구팀은 액체 금속 갈륨(Ga)을 활용한 화학기상증착법(Liquid-Metal-Assisted CVD)을 통해 원하는 결정면을 선택적으로 정밀하게 조절하고, 단결정 MoP를 높은 수율로 합성하는 새로운 기술을 구현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소재 분야 국제학술지 『Advanced Materials』(IF 27.3)에 'Facet-Controlled Growth of Molybdenum Phosphide Single Crystals for Efficient Hydrogen Peroxide Synthesis'라는 제목으로 표지 논문(Inside Front Cover)에 실렸다. (제1저자: 성신여대 김서현 학생/동국대 김정현 학생/한양대 박보근 학생 등 3인, 교신저자: 성신여대 한혁진 교수, 동국대 최민재 교수, 한양대 김병현 교수 등 3인)



Follow Us!

성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하는 공식 SNS 채널



※ 성신여대 공식 홈페이지 | sungshin.ac.kr

성신여대의 입학 정보부터 학과 생활과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식홈페이지!



※ 인스타그램 | [instagram.com/sungshin.official](https://www.instagram.com/sungshin.official)

오늘 수롱이 봤어? 어디에서? 인스타에서!
내 피드 안에 성큼 찾아온 성신여대



※ 유튜브채널 | [youtube.com/sungshintube](https://www.youtube.com/sungshintube)

진짜 성신여대가 궁금하다면?
예비 수정어들 필독 정보인 성신 입시 정보, 학과 소개 영상부터 인터뷰 콘텐츠를 담은 포커즈 온 더 성신까지!



페이스북 Facebook
[facebook.com/sungshin.official](https://www.facebook.com/sungshin.official)



네이버블로그 Naver Blog
blog.naver.com/sungshinwithu



링크드인 LinkedIn
[linkedin.com/school/sungshin-womens-university](https://www.linkedin.com/school/sungshin-womens-university)

DONATION NEWS

1 (주)에너담으로부터 캠퍼스 내 이동 약자 위한 친환경 유틸리티카 기증받아



성신여대는 (주)에너담(대표 김중환)으로부터 유틸리티카 에이프로 A-UM5 1대를 기증받았다. 이번 기증은 성신여대 캠퍼스 내 이동이 불편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편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학교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월 20일, 성신여대 수정캠퍼스(서울시 성북구 소재)에서 진행된 기증식에는 성신여대 이성근 총장과 (주)에너담 이승용 부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에너담은 산업용, 골프카트 등의 이동용 모빌리티와 피크저감용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이차전지 배터리를 적용 한 배터리시스템을 설계,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배터리 테스트용 유틸리티카 1대를 성신여대에 기증했다. 성신여대는 이번에 기증받은 차량을 통해 캠퍼스 구조상 이동이 어려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내 이동 약자들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이성근 총장은 "이번 기증은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캠퍼스에서 이동이 불편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2 '커피 프렌즈 기부' 운영, 장기 소액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통해 기부 문화 확산



성신여대가 매월 커피 한 잔의 가치를 학교에 기부하는 장기 소액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커피 프렌즈 기부' 운영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 '커피 프렌즈 기부'는 월 5,000원 이상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졸업 동문은 물론 교직원, 재학생, 일반인 등 성신을 아끼는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캠페인이다. 기부금은 ▲80%가 학교의 일반 발전기금으로 사용되며, ▲20%는 중간고사 기간 재학생에게 응원 음료를 제공하는 데 쓰인다. 기부금 누적액(500만 원)의 20%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시험 기간 중 재학생에게 음료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응원 행사가 시행되며, 초기에는 모금 목표 달성을 위해 응원 예산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커피 프렌즈 기부'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혜택과 예우가 제공된다. 먼저, 기부자의 이름으로 중간고사 응원 이벤트가 진행되며,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콘텐츠가 제작되어 학교 공식 SNS 채널에 게시된다. 또한, '커피 프렌즈' 명칭이 포함된 기부자 명단이 현수막이나 출력물 형태로 게시되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성신여대는 "졸업 동문은 물론 교직원·재학생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기부로, 작은 나눔이 모여 큰 응원이 된다"며 "많은 분들이 '커피 프렌즈'가 되어 성신과 재학생을 응원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부 참여는 온라인 약정서를 통해 가능하며, 캠페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성신여자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www.sungshin.ac.kr/fund)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전기금 기부 현황

- 2018년 1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대학원, 학부생 장학기금 포함

| 기업/단체 | 금액 |
|--------------|---------------|
| 영원무역 | 2,000,000,000 |
| 국민은행 | 1,200,000,000 |
| 성신여자대학교총동창회 | 160,000,000 |
| 아산사회복지재단 | 122,689,000 |
| 옵트론텍 | 120,000,000 |
| 미래에셋박현주재단 | 117,500,000 |
| 두산연강재단 | 116,881,000 |
| 씨앤씨케미칼 | 100,000,000 |
| 농어촌희망재단 | 97,114,000 |
| 운정재단 | 81,600,000 |
| 본슬김중환장학재단 | 80,563,600 |
| 정수장학회 | 75,134,000 |
| DB김준기문화재단 | 68,993,000 |
| 메가스터디 | 59,960,560 |
| 한국장학재단(푸른등대) | 59,000,000 |
| LG생활건강 | 52,843,054 |
| 마크모크 | 50,600,000 |
| 서울장학재단 | 48,000,000 |
| 한국방정환재단 | 44,922,000 |
| 공예과도자전공공공마켓 | 43,333,000 |
| 협성문화재단 | 35,685,000 |
| KT그룹희망나눔재단 | 35,646,000 |
| 씨티은행미아동지점 | 33,360,061 |
| 낙원새마을금고 | 32,000,000 |
|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 28,882,000 |
|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 27,251,000 |
| 인우장학재단 | 26,168,000 |
| 사학과동문 | 22,500,000 |
| 경방육영회 | 21,000,000 |
| 도이치모터스 | 20,000,000 |
| 에스케이실더스 | 20,000,000 |
| 엘피대산 | 20,000,000 |
| 영어영문학과동문 | 20,000,000 |
| 하나금융나눔재단 | 19,000,000 |
| 삼구아이앤씨 | 18,000,000 |
| 홀트아동복지회 | 17,934,000 |
| 교림소프트 | 17,000,000 |
| 인송문화재단 | 16,000,000 |
| 백운백합재단 | 15,000,000 |
| 우정장학문화재단 | 15,000,000 |
| 지오소프트 | 15,000,000 |
| 해성유희스 | 15,000,000 |
| 엘트웰민초장학재단 | 14,688,000 |
| 하이트진로홀딩스 | 13,250,000 |

— 성신여자대학교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
|----------------|------------|
| 인산장학문화재단 | 13,232,000 |
| 무신사 | 13,000,000 |
| 영민하이테크 | 13,000,000 |
| 보건장학회 | 12,500,000 |
| 안산인재육성재단 | 12,412,000 |
| 보승코퍼레이션 | 12,300,000 |
| 오성장학재단 | 12,300,000 |
| 삼성복지재단 | 12,000,000 |
| 서진테크놀로지 | 12,000,000 |
| 형남진장학재단 | 12,000,000 |
| 성보장학회 | 11,000,000 |
| 성남시장학회 | 10,917,000 |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위원회 | 10,710,828 |
| 삼우 | 10,000,000 |
| 중어중문학과동문 | 10,000,000 |
| 태웅로직스 | 10,000,000 |
| 학군단총동문회 | 10,000,000 |
| 한석경합흥재단 | 10,000,000 |
| 주식회사코이즈 | 9,800,000 |
| 제일은행등암동지점 | 9,511,020 |
| 생물학과동문 | 9,500,000 |
| 비티엠서비스 | 9,000,000 |
| 과천시애향장학회 | 7,500,000 |
| 광주시민장학회 | 7,414,000 |
| 산학협동재단 | 7,346,000 |
| 대한예수교장로회성일교회 | 7,000,000 |
| 삼아사운드 | 7,000,000 |
| 주한미군전우회(KDVA) | 6,594,860 |
| 한국대학봉사회 | 6,500,000 |
| OK배정장학재단 | 6,250,000 |
| 사회교육과동문 | 6,100,000 |
| 오멜론 | 6,015,000 |
| 롯데장학재단 | 6,000,000 |
| 사도장학금 | 6,000,000 |
| 사보이장학회 | 6,000,000 |
| 삼익문화재단 | 6,000,000 |
| 은성장학회 | 6,000,000 |
| 정산장학재단 | 6,000,000 |
| 삼송장학회 | 5,800,000 |
| 독어독문학과동문 | 5,500,000 |
| 온누리B&P | 5,000,000 |
| 우석장학재단 | 5,000,000 |
| 케이스탯리서치 | 5,000,000 |
| 클로봇 | 5,000,000 |
| 킹스코 | 5,000,000 |
| 타키온비엔티 | 5,000,000 |
| 풍산시스템 | 5,000,000 |
| 학군단53기동기회 | 5,000,000 |
| 해마로 | 5,000,000 |

| | |
|--|-----------|
| 유웨이어플라이 | 4,980,000 |
| 위케어국제장학금 (InternationalScholarshipandTuition) | 4,713,200 |
| 나노씨에프 | 4,706,000 |
| 성신펠피아노소사이어티 | 4,500,000 |
| 수서교회 | 4,500,000 |
| 연재장학재단 | 4,500,000 |
| 영어영문학과 배플장학회 | 4,500,000 |
| 충북괴산소방서 | 4,328,640 |
| 강원춘천소방서 | 4,247,840 |
| 11번가 | 4,000,000 |
| 성윤장학금 | 4,000,000 |
| 엘앤케이바이오메드 | 4,000,000 |
| 태솔장학재단 | 4,000,000 |
| 지니언스 | 3,919,441 |
| 우리은행 | 3,700,000 |
| 영풍문화재단 | 3,600,000 |
| 뷰티산업학과위원회 | 3,550,000 |
| 강남구청 | 3,545,000 |
| 의송장학회 | 3,308,000 |
| 이루리 | 3,168,400 |
| 간호학과동문 | 3,000,000 |
| 더코더 | 3,000,000 |
| 오상자이엘서산지점 | 3,000,000 |
| 윤리교육과동문 | 3,000,000 |
| 이스테파노장학회 | 3,000,000 |
| 인피닉 | 3,000,000 |
| 학군단52기동기회 | 3,000,000 |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 3,000,000 |
| 가람장학금 | 2,900,000 |
| 동대문소방서 | 2,816,400 |
| 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 (우리은행) | 2,580,000 |
| 충북충주소방서 | 2,511,840 |
| 일산장학회 | 2,500,000 |
| 해성문화재단 | 2,500,000 |
| 충남홍성소방서 | 2,283,840 |
| 대우은행 | 2,019,200 |
| CSElab | 2,000,000 |
| 경원문화재단 | 2,000,000 |
|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 2,000,000 |
| 안양만안새마을금고 | 2,000,000 |
| 이춘봉인생치킨성신여대점 | 2,000,000 |
| 대산포크 | 1,850,000 |
| 교육학과동문 | 1,800,000 |
| 충남계룡소방서 | 1,712,880 |
| 원일전선판매 | 1,654,000 |
| 충북보은소방서 | 1,592,160 |
| KCU | 1,592,000 |
| 재단법인선현 | 1,588,000 |

| | |
|---------------------------------|-----------|
| 성신새마을금고 | 1,530,000 |
| 지오피 | 1,500,000 |
| 하영호장학재단 | 1,500,000 |
| 강원고성소방서 | 1,444,560 |
| 제이케이인스퍼레이션 | 1,429,000 |
| 미담푸드 | 1,379,966 |
| 제10회 뷰티산업학과 일반대학원 전시회 참여자 일동 | 1,220,000 |
| 제9회 뷰티융합대학원 작가초대전 참여작가모임 | 1,214,240 |
| 미술대학총동문회 아트바자회 참여자 일동 | 1,166,000 |
| 충남서천소방서 | 1,140,000 |
| 큰도움 | 1,100,000 |
| 국립의료원간호대학 69학번동문 | 1,080,000 |
| 인천공단소방서 | 1,050,300 |
| 간호학과체육동문 | 1,000,000 |
| 더그레이트쇼 | 1,000,000 |
| 도킹블록 | 1,000,000 |
| 머리꽃 | 1,000,000 |
| 문화내러티브 창의적인재발굴장학회 | 1,000,000 |
| 미술넷커뮤니케이션 | 1,000,000 |
| 베리굿스튜디오 | 1,000,000 |
| 빅스톤스튜디오 | 1,000,000 |
| 서울평화라이온스클럽 | 1,000,000 |
| 수문사 | 1,000,000 |
| 한영재단 | 1,000,000 |
| 헤르사인터내셔널 | 800,000 |
| 강원영동소방서 | 776,850 |
| 충북영동소방서 | 776,850 |
| 에버트란 | 600,000 |
| 한문교육학과동문 | 600,000 |
| 충남당진소방서 | 570,970 |
| 국제교류지원팀·국제교육원 | 510,000 |
| 백퍼센트 | 500,000 |
| 휴캠프로 | 400,000 |
| 오들오들부평1호점 | 342,720 |
| 청년트럭 | 300,000 |
| 핀테크암호연구실 | 200,000 |
| 그린코스(무상기증) | - |
| 위세아이텍(무상기증) | - |

소계 5,804,498,280

| 개인 | (단위: 원) |
|--------------|---------------|
| 조윤신 | 1,551,510,000 |
| 김선현 | 180,000,000 |
| 양보경 | 131,000,000 |
| 이신자 | 92,000,000 |
| 권치규 | 86,504,514 |
| 김수수 | 75,533,000 |
| 정관모 | 73,333,000 |
| 손계정 | 60,000,000 |
| 황경숙 | 50,000,000 |
| 김여주 | 43,000,000 |
| 김성복 | 40,562,600 |
| 김영석 | 35,462,000 |
| 김경희 | 33,000,000 |
| 장은미 | 30,000,000 |
| 이양복 | 26,200,000 |
| 박○○(익명 본인요청) | 23,030,600 |
| 이상근 | 19,629,650 |
| 허경옥 | 19,100,000 |
| 유근택 | 17,024,480 |
| 성효용 | 16,446,770 |
| 김종배 | 16,313,160 |
| 최예태 | 15,333,000 |
| 김명원 | 15,000,000 |
| 육영숙 | 15,000,000 |
| 이문옥 | 15,000,000 |
| 황태희 | 14,970,000 |
| 김용희 | 14,600,000 |
| 박일호 | 14,600,000 |
| 김륜옥 | 13,300,000 |
| 윤미순 | 13,000,000 |
| 최배영 | 13,000,000 |
| 허명희 | 13,000,000 |
| 박세롬 | 12,800,000 |
| 박영근 | 12,000,000 |
| 심성아 | 11,749,648 |
| 김기선 | 11,500,000 |
| 김도형 | 11,250,000 |
| 강병개 | 11,000,000 |
| 한상복 | 10,812,000 |
| 장욱희 | 10,748,800 |
| 김나경 | 10,047,500 |
| 강창수 | 10,023,680 |
| 김동수 | 10,000,000 |
| 김영호 | 10,000,000 |
| 노영화 | 10,000,000 |
| 미혜리 | 10,000,000 |
| 손성기 | 10,000,000 |
| 이순아 | 10,000,000 |

| | |
|--------------|------------|
| 오세용 | 10,000,000 |
| 정미경 | 10,000,000 |
| 정현식 | 10,000,000 |
| 황화자 | 10,000,000 |
| 이형민 | 9,270,350 |
| 김정연 | 9,018,290 |
| 강진호 | 9,011,350 |
| 김영주(간호학과) | 8,600,000 |
| 이윤미 | 8,337,350 |
| 채정현 | 8,276,230 |
| 윤기현 | 8,057,146 |
| 한지수 | 8,031,380 |
| 전용필 | 7,724,820 |
| 김경민 | 7,660,800 |
| 박노진 | 7,500,000 |
| 한태수 | 7,247,020 |
| 박노윤 | 7,038,290 |
| 윤진호 | 7,022,910 |
| 권혁민 | 7,000,000 |
| 심두보 | 7,000,000 |
| 홍기형 | 7,000,000 |
| 박상호 | 6,866,000 |
| 김장욱 | 6,500,000 |
| 류준경 | 6,250,000 |
| 문○○(익명 본인요청) | 6,200,000 |
| 김주홍 | 6,042,970 |
| 강필용 | 6,000,000 |
| 정명실 | 6,000,000 |
| 정영남 | 5,846,100 |
| 심상민 | 5,820,000 |
| 소현진 | 5,713,924 |
| 전민영 | 5,630,000 |
| 이승민 | 5,621,450 |
| 박만식 | 5,534,220 |
| 김영주(스포츠과학부) | 5,500,000 |
| 김주덕 | 5,500,000 |
| 조○○(익명 본인요청) | 5,498,310 |
| 박민영 | 5,430,030 |
| 이원호 | 5,267,110 |
| 양윤권 | 5,059,010 |
| 노경란 | 5,045,000 |
| 홍현선 | 5,043,190 |
| 김고은 | 5,040,750 |
| 김순정 | 5,039,630 |
| 송재민 | 5,039,062 |
| 강혜선 | 5,038,660 |
| 이경희 | 5,036,440 |
| 전홍주 | 5,035,490 |
| 김연식 | 5,035,310 |
| 명선영 | 5,033,470 |

| | |
|-----|-----------|
| 서현진 | 5,031,380 |
| 문윤경 | 5,031,250 |
| 정이화 | 5,029,690 |
| 이지연 | 5,029,040 |
| 배식한 | 5,027,790 |
| 이자원 | 5,026,965 |
| 이채영 | 5,026,830 |
| 임경춘 | 5,026,290 |
| 양인목 | 5,026,210 |
| 이성건 | 5,023,880 |
| 이성기 | 5,022,020 |
| 고선강 | 5,019,000 |
| 현정은 | 5,018,480 |
| 김일환 | 5,018,400 |
| 김봉수 | 5,011,890 |
| 신영주 | 5,009,360 |
| 강태훈 | 5,000,000 |
| 강혜순 | 5,000,000 |
| 고정미 | 5,000,000 |
| 고철환 | 5,000,000 |
| 권정윤 | 5,000,000 |
| 김상태 | 5,000,000 |
| 김선주 | 5,000,000 |
| 김성희 | 5,000,000 |
| 김속민 | 5,000,000 |
| 김시만 | 5,000,000 |
| 김애리 | 5,000,000 |
| 김호성 | 5,000,000 |
| 문경호 | 5,000,000 |
| 박경신 | 5,000,000 |
| 박부자 | 5,000,000 |
| 박성순 | 5,000,000 |
| 박종수 | 5,000,000 |
| 박혜경 | 5,000,000 |
| 배지희 | 5,000,000 |
| 백영빈 | 5,000,000 |
| 신준호 | 5,000,000 |
| 심선영 | 5,000,000 |
| 윤광용 | 5,000,000 |
| 윤미덕 | 5,000,000 |
| 윤종성 | 5,000,000 |
| 이나연 | 5,000,000 |
| 이명숙 | 5,000,000 |
| 이선경 | 5,000,000 |
| 이승기 | 5,000,000 |
| 이인식 | 5,000,000 |
| 이일구 | 5,000,000 |
| 이준성 | 5,000,000 |
| 이철우 | 5,000,000 |
| 이향은 | 5,000,000 |

| | |
|-----------|-----------|
| 임인경 | 5,000,000 |
| 장혜진 | 5,000,000 |
| 정선호 | 5,000,000 |
| 조윤정(교육학과) | 5,000,000 |
| 진경선 | 5,000,000 |
| 최막례 | 5,000,000 |
| 최민자 | 5,000,000 |
| 최세환 | 5,000,000 |
| 최승욱 | 5,000,000 |
| 홍석률 | 5,000,000 |
| 홍승연 | 5,000,000 |
| 홍용철 | 5,000,000 |
| 황정희 | 5,000,000 |
| 박초희 | 4,919,620 |
| 홍윤표 | 4,750,000 |
| 조병왕 | 4,731,402 |
| 서동수 | 4,514,310 |
| 이수련 | 4,500,000 |
| 현경실 | 4,400,000 |
| 설동재 | 4,320,810 |
| 은송희 | 4,200,000 |
| 전연희 | 4,000,000 |
| 최소영 | 4,000,000 |
| 김수연 | 3,500,000 |
| 조영일 | 3,500,000 |
| 박관영 | 3,407,980 |
| 김홍성 | 3,407,747 |
| 차경욱 | 3,347,000 |
| 김옥임 | 3,300,000 |
| 서동현 | 3,300,000 |
| 신철호 | 3,015,290 |
| 강옥현 | 3,000,000 |
| 강효진 | 3,000,000 |
| 권기범 | 3,000,000 |
| 김선영 | 3,000,000 |
| 김향기 | 3,000,000 |
| 박장우 | 3,000,000 |
| 이명규 | 3,000,000 |
| 지홍근 | 3,000,000 |
| 한방원 | 3,000,000 |
| 정영민 | 2,890,000 |
| 고연숙 | 2,700,000 |
| 심화진 | 2,599,000 |
| 임성훈 | 2,446,530 |
| 김중훈 | 2,400,000 |
| 김티제이 | 2,400,000 |
| 이보연 | 2,400,000 |
| 황선희 | 2,302,830 |
| 조명원 | 2,300,000 |
| 류현수 | 2,222,230 |

| | |
|--------------|-----------|
| 고동숙 | 2,209,680 |
| 이혜진 | 2,157,500 |
| 나익성 | 2,108,190 |
| 정방호 | 2,100,000 |
| 노○○(익명 본인요청) | 2,090,000 |
| 김태형 | 2,045,730 |
| 권수현 | 2,040,000 |
| 강호선 | 2,038,290 |
| 김현순 | 2,037,100 |
| 장선희 | 2,036,640 |
| 박기주 | 2,034,990 |
| 김용재 | 2,032,540 |
| 천주영 | 2,032,130 |
| 이정윤 | 2,031,880 |
| 이종철 | 2,029,590 |
| 전홍민 | 2,028,700 |
| 유주현 | 2,026,110 |
| 최민영 | 2,024,600 |
| 박태성 | 2,024,510 |
| 김민아 | 2,023,820 |
| 강경선 | 2,021,790 |
| 오미선 | 2,013,910 |
| 공규리 | 2,000,000 |
| 구본우 | 2,000,000 |
| 김명선 | 2,000,000 |
| 김범진 | 2,000,000 |
| 김은희 | 2,000,000 |
| 김현숙 | 2,000,000 |
| 노신경 | 2,000,000 |
| 박현용 | 2,000,000 |
| 박형준 | 2,000,000 |
| 배현숙 | 2,000,000 |
| 서수연 | 2,000,000 |
| 신혜정 | 2,000,000 |
| 심광섭 | 2,000,000 |
| 양수진 | 2,000,000 |
| 윤상덕 | 2,000,000 |
| 윤용남 | 2,000,000 |
| 윤현근 | 2,000,000 |
| 이가영 | 2,000,000 |
| 이남규 | 2,000,000 |
| 이영주 | 2,000,000 |
| 이재선 | 2,000,000 |
| 이종협 | 2,000,000 |
| 이홍구 | 2,000,000 |
| 정재원 | 2,000,000 |
| 조대훈 | 2,000,000 |
| 표영희 | 2,000,000 |
| 한미경 | 2,000,000 |
| 한영숙 | 2,000,000 |

| | |
|-----|-----------|
| 한의석 | 2,000,000 |
| 홍의석 | 2,000,000 |
| 홍청의 | 2,000,000 |
| 김정희 | 1,824,000 |
| 심천보 | 1,600,000 |
| 김수경 | 1,567,000 |
| 송정연 | 1,543,240 |
| 도진국 | 1,533,780 |
| 탁희정 | 1,530,010 |
| 김민성 | 1,524,160 |
| 윤성민 | 1,500,000 |
| 이정웅 | 1,500,000 |
| 이지윤 | 1,500,000 |
| 정민기 | 1,253,760 |
| 김원영 | 1,250,000 |
| 이태수 | 1,250,000 |
| 전도훈 | 1,250,000 |
| 이재훈 | 1,243,670 |
| 조성희 | 1,239,960 |
| 최은경 | 1,233,580 |
| 김순진 | 1,200,000 |
| 이영은 | 1,109,390 |
| 최경하 | 1,060,000 |
| 유미애 | 1,049,310 |
| 이혜원 | 1,049,060 |
| 김영진 | 1,038,040 |
| 장희원 | 1,037,530 |
| 양경진 | 1,036,190 |
| 황재하 | 1,033,532 |
| 이완 | 1,030,662 |
| 김수정 | 1,029,130 |
| 오윤정 | 1,028,080 |
| 박미숙 | 1,027,820 |
| 장희영 | 1,023,830 |
| 유승호 | 1,022,010 |
| 김향수 | 1,021,570 |
| 김정하 | 1,021,040 |
| 김영은 | 1,019,500 |
| 박희진 | 1,018,850 |
| 최동순 | 1,010,000 |
| 강현숙 | 1,000,000 |
| 기희성 | 1,000,000 |
| 김귀옥 | 1,000,000 |
| 김기현 | 1,000,000 |
| 김정현 | 1,000,000 |
| 김주희 | 1,000,000 |
| 문기탁 | 1,000,000 |
| 박경숙 | 1,000,000 |
| 박미애 | 1,000,000 |
| 박유민 | 1,000,000 |

| | |
|----------------|-----------|
| 서석 | 1,000,000 |
| 서영주 | 1,000,000 |
| 신동훈 | 1,000,000 |
| 신정원 | 1,000,000 |
| 오재환 | 1,000,000 |
| 오현주 | 1,000,000 |
| 유재현 | 1,000,000 |
| 윤수정 | 1,000,000 |
| 윤정숙 | 1,000,000 |
| 이차욱 | 1,000,000 |
| 임홍빈 | 1,000,000 |
| 장미희 | 1,000,000 |
| 전길용 | 1,000,000 |
| 정승민 | 1,000,000 |
| 조윤주 | 1,000,000 |
| 최광화 | 1,000,000 |
| 허윤정 | 1,000,000 |
| 황나현 | 1,000,000 |
| 김연하 | 800,000 |
| 성신사랑1(익명 본인요청) | 800,000 |
| 이재윤(경영학과) | 800,000 |
| 강석훈 | 699,000 |
| 곽나영 | 648,000 |
| 추병길 | 630,960 |
| 김학경 | 600,000 |
| 최성희 | 600,000 |
| 고주연 | 554,000 |
| 진선민 | 551,182 |
| 김재두 | 540,630 |
| 임현표 | 534,930 |
| 김혜란 | 533,830 |
| 하현명 | 531,170 |
| 김주형 | 528,172 |
| 정상원 | 527,022 |
| 심재길 | 525,812 |
| 박민이 | 525,250 |
| 이유경 | 523,895 |
| 김동윤 | 522,817 |
| 정세진 | 520,790 |
| 이준선 | 510,060 |
| 이재윤 | 508,660 |
| 故박원형 | 500,000 |
| 고원준 | 500,000 |
| 권수지 | 500,000 |
| 권현진 | 500,000 |
| 김경은 | 500,000 |
| 김상훈 | 500,000 |
| 김지은 | 500,000 |
| 김호진 | 500,000 |
| 박길자 | 500,000 |

| | |
|---------------|---------|
| 박창식 | 500,000 |
| 배종민 | 500,000 |
| 신재우 | 500,000 |
| 안경종 | 500,000 |
| 이경룡 | 500,000 |
| 이명규(강호인) | 500,000 |
| 이민구 | 500,000 |
| 이병호 | 500,000 |
| 이제승 | 500,000 |
| 이주영(비교과교육혁신팀) | 500,000 |
| 이치형 | 500,000 |
| 이혜영 | 500,000 |
| 임하나 | 500,000 |
| 장선화 | 500,000 |
| 홍윤정 | 500,000 |
| 황지제 | 500,000 |
| 안광연 | 450,000 |
| 정수연 | 402,116 |
| 김경자 | 400,000 |
| 채진우 | 362,740 |
| 임태희 | 360,000 |
| 상윤모 | 357,420 |
| 신용수 | 350,000 |
| 이해용 | 350,000 |
| 윤종석 | 340,000 |
| 오누리 | 334,000 |
| 김일 | 318,460 |
| 이향애 | 310,690 |
| 김영주(뷰티산업학과) | 300,000 |
| 량쉬 | 300,000 |
| 노윤경 | 292,340 |
| 노승욱 | 267,000 |
| 김대신 | 250,000 |
| 김효영 | 250,000 |
| 이승엽 | 250,000 |
| 최인섭 | 250,000 |
| 김미정 | 233,490 |
| 송나래 | 232,120 |
| 박선우 | 230,000 |
| 김미덕 | 223,200 |
| 김영란 | 200,000 |
| 김진숙 | 200,000 |
| 박○○(익명 본인요청) | 200,000 |
| 안드보라 | 200,000 |
| 윤영조 | 200,000 |
| 이혜성 | 200,000 |
| 임소연 | 200,000 |
| 임정욱 | 200,000 |
| 장선영 | 200,000 |
| 장재경 | 200,000 |

| | |
|---------------|---------|
| 전소영 | 200,000 |
| 김덕진 | 184,450 |
| 최경미 | 177,000 |
| 김주현 | 160,000 |
| 곽미숙 | 150,000 |
| 송정선 | 150,000 |
| 정병헌 | 150,000 |
| 김윤지 | 142,500 |
| 김○○(익명 본인요청) | 138,720 |
| 최정연 | 120,000 |
| 무기명 | 112,720 |
| 조효진 | 104,000 |
| 김혜린 | 100,000 |
| 김호순 | 100,000 |
| 박종영 | 100,000 |
| 손성익 | 100,000 |
| 유나영 | 100,000 |
| 윤재익 | 100,000 |
| 이명복 | 100,000 |
| 이주현 | 100,000 |
| 장종현 | 100,000 |
| 장주영 | 100,000 |
| 정희창 | 100,000 |
| 김규리 | 80,000 |
| 김영주 | 74,670 |
| 이도연 | 60,000 |
| 이유린 | 60,000 |
| 이선우 | 50,750 |
| 김준홍 | 50,000 |
| 송영철 | 50,000 |
| 송춘기 | 50,000 |
| 장지은 | 50,000 |
| 황빛나 | 50,000 |
| 박주희 | 48,870 |
| 손윤서 | 44,010 |
| 안명선 | 43,860 |
| 성지영 | 42,930 |
| 나정현 | 42,320 |
| 조국 | 41,940 |
| 이승우 | 39,810 |
| 황정연 | 38,870 |
| 김보나 | 37,390 |
| 이재원(바이오생명공학과) | 37,200 |
| 김미숙 | 36,780 |
| 김성빈 | 36,760 |
| 김누리 | 35,940 |
| 김재철 | 34,560 |
| 정성운 | 34,440 |
| 김중헌 | 33,690 |
| 이명희 | 33,550 |

| | |
|----------------------|--------|
| 유정호 | 33,440 |
| 김민식 | 32,352 |
| 김지영(대외협력홍보팀) | 31,870 |
| 오경환 | 31,590 |
| 김해원 | 31,300 |
| 김성민 | 31,110 |
| 엄인옥 | 31,020 |
| 조성우 | 31,020 |
| 박지웅 | 30,830 |
| 이주영 | 29,680 |
| 김후진 | 29,590 |
| 김정섭 | 29,240 |
| 박윤정 | 28,900 |
| 강종구 | 27,540 |
| 정장호 | 27,530 |
| 김현석 | 27,450 |
| 송초연 | 27,090 |
| 김명석 | 27,030 |
| 김수리 | 26,890 |
| 고미진 | 26,840 |
| 정호현 | 26,670 |
| 강대성 | 26,480 |
| 김송하 | 26,010 |
| 정해남 | 25,950 |
| 심치열 | 25,840 |
| 이세영 | 25,840 |
| 조무용 | 25,370 |
| 김환 | 25,300 |
| 홍승일 | 25,270 |
| 홍사미 | 24,040 |
| 이현아 | 23,860 |
| 장미경 | 23,560 |
| 박성주 | 23,210 |
| 신동혁 | 22,760 |
| 김혜련 | 22,170 |
| 공영숙 | 21,950 |
| 나근영 | 20,000 |
| 박소현 | 20,000 |
| 양혜림 | 20,000 |
| 김익주 | 19,800 |
| 이유강 | 19,670 |
| 임봉래 | 19,300 |
| ZHENG CHUNSHI | 18,250 |
| 이은경 | 17,650 |
| 김지영(대학혁신지원사업추진단 TFT) | 17,580 |
| 김동훈 | 16,410 |
| 고성희 | 16,150 |
| 배수영 | 15,340 |
| 임연섭 | 15,270 |

| | |
|----------------|----------------------|
| 강종호 | 13,620 |
| 김성수 | 11,310 |
| 금효정 | 10,000 |
| 김수인 | 10,000 |
| 김희연 | 10,000 |
| 린영 | 10,000 |
| 박정은 | 10,000 |
| 왕소동 | 10,000 |
| 김준철 | 9,920 |
| 조예슬 | 9,800 |
| 이미연 | 9,230 |
| 안양준 | 8,740 |
| 이소윤 | 7,030 |
| 성신사랑2(익명 본인요청) | 6,000 |
| 박서현 | 5,660 |
| 김에스더 | 5,000 |
| 성신사랑3(익명 본인요청) | 5,000 |
| 신윤정 | 5,000 |
| 염서정 | 5,000 |
| 윤혜리 | 5,000 |
| 이데미 | 5,000 |
| 이종서 | 5,000 |
| 이하진 | 5,000 |
| 최지우 | 5,000 |
| 남휘정 | 4,730 |
| 강은경 | 4,380 |
| 최영동 | 2,840 |
| 이나현 | 2,000 |
| 김보경 | 380 |
| 소계 | 3,942,376,230 |

| | |
|-------------------|----------------------|
| 기업/단체 및 개인 | |
| 총계 | 9,746,874,510 |

성신여자대학교 발전기금 참여 안내 ♡♡

소액으로 시작하는 소중한 기부

커피프렌즈

수롱이의 친구



발전기금 종류

- 1) 일반발전기금**
 -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출연하는 기금입니다.
 - 학교발전을 위한 사용처를 선정하며,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합니다.
- 2) 지정발전기금**
 - 기부자가 용도·사용처를 직접 지정하여 출연하는 기금입니다.
 - 기부자가 희망하는 지정된 분야에 직접 사용합니다.
 - ※ 장학기금 문의: 성신여자대학교 장학팀 ☎ 02-920-7014

기부참여대상

성신가족(동문, 교직원, 학생, 학부모), 독지가, 기업가, 기관, 단체 등 성신여자대학교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

참여방법

- 1) 약정서 작성(오프라인)**
 - 약정서 다운로드 : <https://www.sungshin.ac.kr/fund/14090/subview.do>
 - 제출 방법
 - 우편 : (02844)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34다길2 행정관 1층, 101호(대외협력홍보팀)
 - 이메일 : ssfund@sungshin.ac.kr
 - 팩스 : 02-920-7684
- 2) 온라인 기부 약정**
 - 성신여자대학교 온라인 기부시스템 접속 후 직접 약정
 - 다양한 결제수단 이용 가능(무통장입금, 자동이체(CMS),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PAYCO 등)
- 3) 방문약정**
 - 성신여자대학교 행정관 101호 대외협력홍보팀 방문 접수
 - 전화 : 02-920-7471
 - 이메일 : ssfund@sungshin.ac.kr



성신여대 발전기금 약정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온라인 기부약정 바로가기

납입방법

1) 무통장입금 (예금주: 성신여자대학교)

| 기금종류 | 은행 및 계좌 | 예금주 |
|--------|-----------------------|---------|
| 일반발전기금 | 국민은행 016737-04-005370 | 성신여자대학교 |
| 지정발전기금 | 국민은행 016701-04-160575 | |

2) 자동이체(CMS)

- 약정서 또는 온라인 약정 시 신청, 매월 15일에 자동으로 이체 진행
* 미납 시 매월 20일에 재출금 진행

3) 급여공제

- 성신여자대학교에서 급여를 받는 교직원(강사 포함) 대상
- 매월 급여에서 자동 분할 납부

4)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가상계좌, 휴대폰 납부 등

- 온라인 약정을 통해 기부 결제수단 직접 선택 및 납부 가능

5) 직접방문

- 성신여자대학교 돈암수정캠퍼스 행정관 101호 대외협력홍보팀으로 방문 후, 약정서 작성

세제혜택

1) 개인기부

-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 2025년 기준 1,0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15%, 1,000만원 초과 분 세액공제율 30%

2) 법인기부

-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 기부금액의 최대 50%까지 손금산입 가능, 초과분은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 과세표준 | 세율 | 누적금액 |
|-----------------|-----|---------------------------|
| 2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
| 200억원 초과 | 22% |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

기부금 기탁 ㉠ 학교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취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3) 상속재산 기부

- 상속세 전액 비과세 가능
- 조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부
부동산의 경우 등기이전 전 상태일 것



성신여대 발전기금 바로가기

성신여자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



성신 온라인 기부하기

기부자 정보

| | | | | |
|-----------|---------------------------------|--------------------------------|-----------------------------|------------------------------|
| 성명 (사업자명) | <input type="checkbox"/> 익명 희망 |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 *기부금 영수증 미발급 신청 시 생년월일만 기재 | |
| 연락처 | 주 소 | | | |
| | 휴 대 번 호 | E-mail | | |
| | 직 장 명 | 부서/직위 | / | |
| 성신과의 관계 | <input type="checkbox"/> 동문/학생 | 학과(부): | 입학년도: | |
| |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 소속: | 교번: | |
| | <input type="checkbox"/> 일반(택1) | <input type="checkbox"/> 기업/단체 | <input type="checkbox"/> 개인 |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

약정정보

| 기부금액 | 일금 | 원정 (₩) | 원 |
|-----------|---------------------------------|---|---|
| 기부용도 (택1) | <input type="checkbox"/> 일반발전기금 | 기부금 용도 지정을 성신여자대학교에 위임 | |
| | <input type="checkbox"/> 지정발전기금 | 기부금 용도를 기부자가 직접 지정(용도:) * 지정된 용도로 집행 후 소액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 '발전기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제5항에 의거, 용도를 변경할 수 있음 | |
| | <input type="checkbox"/> 장학기금 | 기부금 용도를 장학금으로 지정 ※ 추가 서류작성 필요 | |
| | <input type="checkbox"/> 현물기부금 | 금전이 아닌 현물로 기부 ※ 추가 서류작성 필요 | |

입금방법(택1)

| | | | | | |
|-------------------------------|---|---------------------------------|------------------|--------|--------------|
| 일시납부 | <input type="checkbox"/> 무통장입금 | 납부예정일 | 20 년 월 일 | | |
| | | <input type="checkbox"/> 일반발전기금 | 016737-04-005370 | 국민은행 | 예금주: 성신여자대학교 |
| | | <input type="checkbox"/> 지정발전기금 | 016701-04-160575 | | |
| <input type="checkbox"/> 장학기금 | 016737-04-004472 | | | | |
| 분할납부 | 월분납액 | 매월 금 | 원 (₩) 원 | | |
| | 납부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회) | | | |
| |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 | 기부자가 직접 은행에 내방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신청 | | | |
| | <input type="checkbox"/> CMS 자동이체 | 은행명 | 계좌번호 | | |
| | | 예금주 | 이체일자 | 매월 15일 | |
| <input type="checkbox"/> 급여공제 | 성신여자대학교 교직원에 한하며, 급여일(25일)에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 | | | |

발전기금 현금 유치 공로자

※ 1천만원 이상 일반발전기금 및 지정발전기금(건축비) 현금 기부 시 작성

| | | | | |
|------------|--|--|--|--|
| 성명 (단체명) | | | | 기부자께서 본 대학교에 1천만원 이상의 현금(지정-건축비 포함)을 기부하는데 있어 공로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연락처 (휴대번호)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기부자 관리 및 예우, CMS 자동이체 *수집·이용항목/(필수)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자동이체 시), 교번(급여공제 시) (선택) 필수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 *수집·이용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3자 제공/ (사)금융결제원(CMS 계좌정보) 등 법에서 정한 기관 *수집·이용·제공기간/ 준영구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기부자는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 처리 및 기부자 예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부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항목 미작성 시 기부처리 불가)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 제3자 제공(CMS 자동이체 시)에 |
|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선택) 홍보 활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 목적/ 대외/동문/기부자 행사(캠페인 포함)에 대한 알림 및 기부 사항 홍보 *수집·이용항목/ 성명, 연락처(주소, 휴대번호, E-mail, 직장명, 부서/직위) *수집·이용기간/ 준영구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기부자는 홍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하지 않을 경우 기부자 대상 각종 기부 캠페인 및 행사 참여 안내 등의 혜택 수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 |
|--------|------------------------------|----------------------------------|
| 홍보 활용에 |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위와 같이 성신여자대학교 발전기금을 기부(약정)합니다.

기부(약정)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성신과 함께 걷는 **벚**이 되어 주십시오.

성신여자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36년 '성신(誠信)'의 이념으로 건학 이후 성신여자대학교는 수많은 여성 인재를 배출해 왔습니다.
앞으로 성신여자대학교의 성장과 발전의 역사로 기록될 또 다른 100년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며,
성신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을 기부하여 주신 여러분께 아래의 예우 프로그램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혜택구분 | 제공(회수) | 10만원 이상 | 1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 5,000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
| 세금 우대 혜택 | 총 1회 (기부영수증 발급) | ● | ● | ● | ● | ● | ● | ● | ● | ● |
| 홈페이지 및 간행물에 소개 | 총 1회 | ○ | ○ | ○ | ○ | ○ | ○ | ○ | ○ | ○ |
| 감사카드 | 총 1회 | | ● | ● | ● | ● | ● | ● | ● | ● |
| 학교 달력 발송 | 1회/년 (해당기간) | | ○ (3년) | ○ (5년) | ○ (5년) | ○ (5년) | ○ (5년) | ○ (5년) | ○ (5년) | ○ (5년) |
| 학교 기념품 증정 | 총 1회 | | ● | ● | ● | ● | ● | ● | ● | ● |
| Naming 예우 | 총 1회 | | | | | ○ (비품) | ○ (공간) | ○ (공간) | ○ (공간) | ○ (공간) |
| 건강검진(연 1회)* | 교직원종합검진 1회/년 (해당기간) | | | | | | | ● (본 5년) | ● (본 10년) | ● (본 30년) |
| 총장 초청 만찬 초대 | 만찬 진행 시 | | | | | ○ | ○ | ○ | ○ | ○ |
| 각종행사 VIP로 초대 | 행사 진행 시 | | | | | ● | ● | ● | ● | ● |
| 기부증서 | 총 1회 | | | | | ○ | ○ | ○ | ○ | ○ |
| 휘트니스센터 이용* | VIP 카드(1개) 발급 (해당기간) | | | | | ● (1년) | ● (3년) | ● (5년) | ● (평생) | ● (평생) |
| 수련원 이용 우대(난향원)* | 1회/년 (해당기간) | | | | | ○ (본 1년) | ○ (본 3년) | ○ (본 5년) | ○ (본 평생) | ○ (본 평생) |
| 무료 주차증* | 무료 1대 등록/년 (해당기간) | | | | | ● (1년) | ● (3년) | ● (5년) | ● (평생) | ● (평생) |
| 도서관 이용* | 도서관 열람증(1개) 발급 (해당기간) | | | | | ○ (10년) | ○ (20년) | ○ (30년) | ○ (평생) | ○ (평생) |
| 평생교육원 수강료 할인* (개인레슨 과목/과정 제외) ※ 선발절차가 있는 과정은 정규 절차를 거쳐 선발 시, 적용함 | 1회/년 (해당기간) | | | | | ● 본 30% (1년) | ● 본 50% 직 30% (3년) | ● 본 70% 직 50% (5년) | ● 본 70% 직 50% (10년) | ● 본 100% 직 50% (30년) |
| 외국어교육원 수강료 할인* | 1회/년 (해당기간) | | | | | ○ 본 10% (1년) | ○ 본 30% (3년) | ○ 본 50% 직 30% (5년) | ○ 본 70% 직 50% (10년) | ○ 본 100% 직 70% (평생) |
| 특수대학원 등록금 감면* (교육대학원 제외) ※ 정규 입학전형 절차를 거쳐 입학 시, 적용함 | 총 1명-총 1회 (전학기) | | | | | | ● 본 10% | ● 본 30% | ● 본 50% 직 30% | ● 본 70% 직 50% |

※ 기부금액은 약정금액 납부완료일을 기준으로 함

※ 예우 적용시작일은 기부 당해를 원칙으로 함(단, Naming, 초대, 특수대학원 등록금 감면 예우는 상호 협의)

※ * : 수혜대상자(본인 또는 직계자녀)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함

※ 발전기금 관련 상담 또는 기부자 방문 시 주차권(당일) 발급 가능함(02-920-7471)

※ 본 - 본인, 직 - 직계자녀

※ 학교 여건에 따라 일부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세계와 같이
성신같이**

혁신도, 미래도 세계와 같이!
리더십도, 글로벌도 성신같이!
같이 가치를 만드는 인재를 키웁니다

중국어문·문화학과
조운솔

2026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신입학 모집

수시모집 | 2025. 9. 8.(월) 11:00 ~ 9. 11.(목) 18:00

정시모집 | 2025. 12. 29.(월) 11:00 ~ 12. 31.(수) 18:00

입학관리실 | ipsi.sungshin.ac.kr 입학상담 | 02-920-2000

